

## “대전발전 위한 현안 해결에 힘 모아야”

### 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들 대전시와 협치 한 목소리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국회의원 당선자들은 선거를 통해 만들어진 시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대전발전을 위해 대전시와 협치와 협의회 구성을 제안했다.

국회의원 당선자인 장철민(동구) 박용갑(중구) 박범계(서구) 을 조승래(유성갑) 황정아(유성 을) 박정현(대덕구) 당선인은 18일 오전 민주당 대전시당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대전시와 협치를 통해 힘을 모을 것을 강조했다. 장종태(서구) 갑당선인은 개인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했다.

장철민 대전시당위원장 직무대행은 “대전 교도소 이전, 제2연구단지 조성, 철도 지하화 문제 등 여·아가 큰 이견이 없고 실현만 남아있는 현안에 대해 실질적 논의로 통해 풀어 나가야 한다”며 “대전시와 국회의원 간 정책협의체를 구성해서 대전의 현안을 함께 논의하고 추진해 나가는 방안을 제안한다”며 정책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박범계 당선인은 “과학도시 R&D 예산 축대로 인해 대전 시민들이 입을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운을 뗀 뒤 “공공기관 이전의 문제는 중요한 과제지만 지지부진하다. 의지의 문제다. 총선을 통해 나타난 대전시민의 뜻을 이장우 시장이 존중해 주기를 바란다. 이장우 시장과 협치 할 각오와 의지가 있다”는 말로 대전시와 협의회 구성에 힘을 보탰다.

조승래 당선인은 “대전교도소 이전 문제는 21대 국회 내에서 법안 처리가 필요하다고 정부와 여당이 동의하면 법안 처리를 하면 될 것이고, 법안 처리 없이 예타면제가 가능하다고 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하면 된다”며 “다음 국회로 넘길 이유가 없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하겠다고 말했다. 가능하면 속도감 있게 진행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박용갑 당선인은 최근 불거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전과 관련 “균형 발전 차원에서 그렇고 이전은 맞지 않다. 이전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히고 “0시 축제 기간을 7일에서 올해 9일로 늘린다고 하는데, 축제 기간을 단

축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해야 하고 지하상가 문제의 경우 대전시가 밀어붙이기식으로 하지 말고 상인들과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가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정현 당선인은 “이번 총선은 국민의 심판이었음에도 대통령은 국민을 이해하지 못하고 남 탓으로 일관하고 있어 우려스럽다”는 말로 총선을 평가하고 “혁신도시, 산업단지 개조, 철도 지하화 등 대덕에도 굵직굵직한 현안들이 많다.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7명 가운데 3명이 단체장 출신이어서 현안에 대해 누구보다 이해가 높기 때문에 대전시와 협치에 선도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말로 협치를 강조했다.

황정아 당선인은 “R&D 예산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서 마음대로 흔들지 않도록 예산 5% 이상을 반드시 확보하는 예산 목표제와 글로벌 유니콘 도시 유상에 지리 작은 청년들이 계속해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모든 정부 조건을 개선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정복 기자



▲ 18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합동 기자회견에서 당선인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황정아 유성구, 조승래 유성구 갑, 장철민 동구, 박범계 서구, 박정현 대덕구, 박용갑 중구 국회의원 당선인.

### 대전시 인구 감소 역전에 매진한다

#### 올해 인구정책 5대 분야 91개 사업에 6,146억 원 투입

대전시는 인구감소추세 역전을 위해 2024년도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5대 분야 91개 사업에 6,146억 원을 투입한다.

대전시는 18일 2024년 제1차 인구정책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수립한 인구정책 기본계획(2023~2027)의 연도별 후속 조치로 2024년도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날 이장우 대전시장은 인구정책 관련 관계기관 및 단체, 교수 등 전문가 23명을 제2기 대전광역시 인구정책위원회로 위촉하고, 향후 2년 동안 시 인구정책에 많은 자문과 관심을 요청했다.

2024년도 인구정책 시행계획은 5대 분야로 ▲충족한 돌봄과 양육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주거안정

▲생활인구 증대 ▲도시 매력도 향상 ▲도시 포용연대성 강화 등에 걸쳐 91개 사업으로 시정 25개 과에서 추진하고, 5개 구청도 인구감소 대응에 함께 나선다.

우선, 청년층의 결혼 및 출산율 제고, 청년인구의 대전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 일자리 공급과 주거안정 지원에 28개사업(전액 시비 21개사업) 1,082억 원을 투입한다.

또한, 영유아 및 어린이 돌봄과 양육을 촘촘하게 지원하기 위해 39개 사업(전액 시비 24개 사업) 2,235억 원을 집행하고, 사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 유아교육은 시 교육청과도 협력하여 추진한다.

대전을 방문하는 관광객, 대전의 스포츠 및 여가 시설, 소비시장

을 찾아 대전으로 유입되는 생활인구의 확대를 위해 8개 사업에 2,551억 원을 투자한다.

대전 이외의 지역으로부터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도시의 매력도와 포용·연대성 강화에 16개 사업, 578억 원을 투자한다.

대전시 인구는 2014년 7월 153만 6,000명의 정점을 기록한 이후 감소세를 유지하였으나, 2022년 이후 촘촘한 돌봄과 양육 지원, 청년 일자리 및 주택지원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인구 감소세가 다소 완화되는 추세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저출생 및 인구감소 문제는 수도권보다 잘 사는 지방도시가 나와야 극복이 가능하다”라며 “우리 손으로 일류 경제도시 대전 만들어 우리 미래세대들이 일하고 정착하고 아이 낳고 잘 살아갈 수 있는 도시 기반 조성에 발 벗고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김태선 기자

### 2024 대전 0시 축제 준비 닦아 올렸다

#### 시, 시간여행축제 테마유지·콘텐츠 대폭 보강

대전시는 1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이장우 시장과 축제추진위원회가 참석한 가운데 ‘2024 대전 0시 축제’ 행사운영 대행 운영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오는 8월 9일부터 17일까지 9일간 진행되는 행사의 추진 방향과 주요 프로그램 내용, 운영업체로부터 듣고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올해 대전 0시 축제는 대전의 과거·현재·미래로 떠나는 시간 여행축제라는 테마를 유지하면서, 지난해 미흡했던 콘텐츠를 대폭 보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주요 콘텐츠로는 ▲매일 색다른 주제로 진행되는 9일 9색의 대규모 길거리 퍼레이드 ▲지역예술

인과 함께하는 도심 속 문화예술 D-컬처 페스티벌 ▲매일 밤 최정상급 뮤지션이 펼치는 K-POP콘서트 ▲과학수도 대전의 위상을 뽐낼 혁신과학 기술 전시체험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가족테마파크존 운영 ▲꿈꾸는 패밀리가 총출동하는 꿈돌이 동산 포토존 등이 있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지난해 첫 행사를 반문교사 삼아,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교통통제 방안, 인파 밀집에 따른 안전관리 대책, 원도심 경제 활성화를 위한 먹거리존 확대 등 성공적인 축제 개최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시는 보고회에서 논의된 의견들을 반영해 추진계획을 보완하



고, 전문적인 실행력을 바탕으로 완성도 높은 축제를 만들 계획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전 0시 축제는 단순히 먹고 노는 행사가 아닌, 지역경제는 살리고 대전이 가진 재미와 매력을 만끽할 수 있는 한 여름밤의 축제”라면서, “지난해 나타난 미흡한 부분을 개선해 방문객 20만 명, 경제적 효과

300억 원,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세계적인 축제로의 도약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남은 기간 착실히 준비해 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 0시 축제는 오는 8월 9일부터 17일까지 9일간, 대전역에서 옛 충남도청 구간 1km 도로를 통제하고 중앙로와 원도심 상권 일원에서 개최된다.

김태선 기자

세종교육의 모든 궁금증 해결!

# 세종교육 콜센터

신속·정확·친절한 원콜-원스톱(One-call, One-stop) 민원 안내

- 시범운영 2024. 4. 15.(월) 부터
- 정식개소 2024. 5. 10.(금)
- 운영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 주말, 공휴일 제외
- 상담내용 전·편입학, 검정고시, 임용시험(교원, 지방공무원), 교육복지(돌봄, 방과후, 교육비 지원 등), 제증명 등 교육 관련 민원 사항

세종교육의 모든 궁금증은

044-1396

# 경실련 공천배제 대상자 63.6%, 22대 총선에서 '낙천낙선'

## 경실련 33명 대상으로 공천배제 주문... 16명 공천, 12명 당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의 22대 총선 공천배제 대상자 63.6%가 '낙천낙선'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경실련의 공천배제 대상자가 일부 공천 명단에 올랐고 경실련의 검증 촉구 대상자가 다수 당선됐다. 이에 경실련이 각 정당에 부적격 심사기준 강화를 주문하고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 개정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8일 경실련에 따르면 경실련은 2023년부터 현역 의원을 대상으로 공천배제 운동을 시작했다. 불성실 의정활동, 사회적 물의 유발, 주시·부동산 과다 보유, 반개혁 입법 참여 등을 이유로 부적격 판단 현역 의원의 공천을 배제하는 것이 목표.

경실련의 공천배제 운동 배경은 2022년 7월 헌법재판소의 공직선거법 위헌 판결이다. 당시 판결이 경실련의 공천배제 운동 촉발

에 중요 역할을 했다는 게 경실련의 설명이다.

판결 결과에 따라 경실련은 2022년 9월 22대 총선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출범시켰다. 이어 경실련은 8가지 항목의 도덕성 검증 기준을 적용, 지난 1월 22대 총선 공천배제 대상자 33명과 검증 촉구 대상자 73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8가지 항목은 ▲대표발의 건수 ▲본회의 결석률 ▲상임위 결석률 ▲사회적 물의 ▲의정활동 기간 부동산 과다 매입 ▲불성실 의정활동 의심 상장주식 과다 보유 ▲과거 전과경력 ▲반개혁 입법 등이며 경실련은 자질 검증 기준에 따라 당천 배제 명단과 검증 촉구 명단을 구분, 선정했다.

경실련 조사 결과 공천배제 대상자 33명 중 16명이 공천받았고 16명 중 12명이 22대 총선에서 당선됐다. 이는 전체 대상자의

36.4%에 해당된다. 바꿔 말해 경실련의 공천배제 운동으로 63.6%가 공천에서 배제 또는 22대 총선에서 낙선한 것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공천배제 대상 15명 중 4명만이 공천, 3명(20.0%)이 당선됐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18명 중 12명이 공천, 9명(50.0%)이 당선됐다.

경실련의 공천배제 대상자 중 22대 총선 당선 주요 인물은 김태호, 권성동, 김선교, 박덕흠, 이철규, 윤상현, 이현승, 추경호, 송언석(이상 국민의힘)과 권철승, 김교홍, 천준호(더불어민주당) 등이다.

경실련은 "경실련의 공천배제 운동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하며 "특히 지역구민 대상 낙선 운동보다 각 정당에 부적격자를 공천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낙천운동 전략이 일정한 성과를 얻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 "하지만 불성실 의정활동 의원, 과다 부동산·주식 보유, 사회적 물의로 공천배제 대상자 명단에 올랐거나 검증 촉구 대상자 명단에 오른 의원이 다수 당선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각 정당이 현역 의원 평가시스템 도입과 공개, 공천배제 기준 강화와 예외 없는 적용 등 공천개혁에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공직선거법상 정당에 대한 의사 표현의 주요 수단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현재의 일부 독소조항과 제한적 규정들(공직선거법 제90조, 제93조 제1항, 제103조 제1항, 제103조 제3항)을 폐지 혹은 완화·개정하고 자유로운 정책 비교와 평가를 제약하는 조항(공직선거법 제107조의3)을 폐지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정복기자



## 충남도의회 교육위, 특성화고 방문해 적극적인 '현장 소통'

### 충남드론항공고 한국K-POP고 방문, 학교 특성에 맞는 지원방안 모색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편삼범, 이하 교육위는 18일 충남드론항공고와 한국K-POP고 등 특색있는 학교를 운영하는 특성화고등학교를 방문해 교육현장과 적극적인 소통을 나눴다.

이날 교육위는 두 학교의 학교별 교육과정, 특색교육, 예산시설 등 학교 전반에 대한 현장을 점검하고, 직원들의 의견 청취를 통해 학교 특성에 맞는 지원방안을 모

색했다. 또한 충남형 특성화고등학교 활성화를 통해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지역교육 위기 극복 방안 도내 특색있는 학교를 운영하는 특성화고등학교를 방문해 교육현장과 적극적인 소통을 나눴다.

교육위 위원들은 "농어촌 지역 인구 유출과 학생 수 감소가 걱정되는 만큼 충남지역의 경쟁력 있는 학교 및 사업을 발굴개발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도심지역 과밀 해소와 인구감소 지역 학교에

대한 위기 극복에 앞장서달라"고 입을 모았다.

또한 편삼범 위원장(보령2국민의회)은 "현재의 성과와 능력보다 학생들의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며 "자신의 꿈을 위해 노력하는 학생들의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도록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환기자

## 충남도교육청 1회 추경 5조 1834억원 원안 통과

### 충남도의회 교육위,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조례안 5건 심의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편삼범, 이하 교육위)가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2024년도 충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해 제출된 5조 1834억원을 원안 통과시켰다.

이날 교육위는 2024년도 제1회 충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비롯해 조례안 5건도 함께 심사해 원안 가결했다.

홍성현 위원(천안1·국민의힘)

은 "교직원 민원이 발생했을 때 직원의 고충을 깊이 공감하며 적극적인 대처와 소통으로 해결해 가야 한다"며 "상호 존중과 소통을 중시하는 문화 조성으로 교직원의 참여와 협력을 끌어내달라"고 강조했다.

박정식 위원(아산3·국민의힘)은 "교육 현장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며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요구사항을 적극 파악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희선 위원(태안1·국민의힘)은 "학교 현장에서 연기되거나 추진이 잘되지 않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해야 한다"며 "가능한 문제점과 대응책을 고려해 학생 교육에 미치는 영

향을 최소화해달라"고 지적했다.

신순옥 위원(비례·국민의힘)은 "매년 실시하는 4대 폭력 교육의 주기와 지속적인 실시 여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실질적인 학습 효과를 증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 설계 의지를 예산에 반영해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전약현 위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다문화 학생들의 교육 수요를 정확히 인지하고 이를 반영해야 한다"며 "문화적 갈등을 해소하고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는 학교 분위기를 조성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번 예산안은 오는 22일부터 2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24일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김정환기자

## 천안시의회, 22일부터

### 제268회 임시회 운영

천안시의회가 22일부터 내달 3일까지 12일간 제268회 임시회를 운영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4월 10일 치러진 천안시의회 (아산지구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조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의원선서와 상임위원회 위원 보임이 있을 예정이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처리하고, 5분 발언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장애인 대형버스 도입(이상구 의원) ▲천안시의 효율·효과적 대중교통망 조성을 위해 철도사업에 전분화된 행정조직이 필요(장혁 의원) ▲천안사랑 가치 소득 보장제도 도입(정선희 의원)을 통해 시장 현안에 대해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천안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천안시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사한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는 현장 방문(25일~26일)과 시청 직문(29일~31일)을 통해 시민을 위한 공청하고 올바른 행정행이 이루어지는지 검토한다.

제268회 임시회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각종 안건을 최종심의·의결하고 5일 간의 시청직문을 거쳐 5월 3일 폐회할 예정이다.

천안=이정복기자

## 선거비용 과다·허위 보전

### 청구 및 정치자금 수입

#### ·지출 내역 집중 조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의 허위 회계보고나 불법 지출 등 위법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4월 22일부터 중앙, 시·도 및 구·시·군위원회별로 선거비용·정치자금 조사반을 구성하고 수입·지출내역에 대하여 집중 조사한다.

조사대상은 ▲가격 부풀리기, 축소·누락 등 허위 보전청구 및 회계보고 ▲업체와의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행위 등 ▲자원봉사자의 선거운동 대가제공 및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일배 초과 제공 ▲보전청구행위의 적정기재 여부 등이다.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선거비용 관련 위법행위는 총 182건을 적발하여 고발 16건, 수사 의뢰 1건, 경고 및 위반사실통지 165건을 조치하였다.

## 세종시의회, 세종 스포노믹스 연구모임 제3차 간담회

### 세종시 프로스포츠클럽 유치를 위한 연구과제 논의 시작



세종시의회(의장 이순열)는 18일 오전 10시 30분 의회청사 대회의실에서 '세종시 스포츠산업을 통한 경제 활성화와 연구모임(대표 의원 김재형) 제3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세종시의회 김재형 대표의원과 안신일·윤지경 의원 등 시의원과 전문가, 시청 체육진흥과 담당 공무원 등 총 12

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 2차례의 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국내 프로스포츠클럽 유치를 위한 연구과제 과제를 세부적으로 논의했다. 또한 향후 김재형 대표의원과의 안신일·윤지경 의원 등 시의원과의 전문가, 시청 체육진흥과 담당 공무원 등 총 12

세종시 프로스포츠클럽 유치 방안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한 ▲프로스포츠클럽 일반 현황과 여건 분석 ▲실내 프로스포츠클럽 현황과 경제적 효과분석 ▲세종시의 특성을 고려한 프로스포츠클럽 유치와 이에 따른 기대효과 등이다. 세종시의회는 향후 연구 결과를 구체적인 정책 마련 등의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김재형 의원은 "회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이번 연구공약을 수행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 세종시의 실정과 여건에 맞는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하며, "세종시의 프로스포츠클럽 유치가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질 방안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태성기자

## 당진시의회, 와상 최종증 장애인 24시간 활동보조지원 촉구

### 조상연 의원 5분 자유발언으로 사업 시행을 위한 탄원



당진시의회 조상연 의원은 지난 17일, 제1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당진시의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사업 현황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지적하고 시급한 개선을 촉구했다.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와상 최종증 장애인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하며 돌봄자가 없는 와상 최종증 장

에인에게는 24시간 활동보조가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적 요소이다. 이에, 조상연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육과 전안시에서는 이미 와상 최종증 장애인을 위한 24시간 활동보조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반면, 당진시는 18시간만 지원한다"라며, "당진시 또한 최종증 장애인을 위한 24시간 활동보조지원 사업의 즉각 시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 의원은 "장애인 1인 가구를 대상으로 24시간 활동보조 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물론이고 1인 가구가 아니더라도 비장

애인 보호자가 편히 잠을 취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추가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라며, "와상 최종증 장애인의 욕망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전문적인 의료 및 돌봄 서비스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조상연 의원은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장애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시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힘을 보태주시기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당진시의 장애인 차별 문제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당진=최근수기자

## 충남도의회, 음주·난폭운전 신고 도민에 포상금 지급 추진

### 이상근 의원 대표발의 '자치경찰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조지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열린 제351회 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내 치안유지를 위하여 「도로교통법」 제42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및 같은 법 제46조의3에 따른 '난폭운전 행위'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예전의 범위에서 포

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 의원은 "해당 제도를 우선 도입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음주 교통사고가 포상제 시행 이전에 비해 14.8% 감소하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도의 실효성을 도모하기 위해 제도로 된 홍보가 이뤄져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진표 의장, 퍼거스 캐나다 하원의장과 회담

### 김 의장 "의회가 정부협력 적극 지원해야"... 캐-한 의원친선협회 승격 당부



그레고 퍼거스 하원의장과 레이몽드 가네 상원의장의 공동 초청으로 캐나다를 공식 방문중인 김진표 의장은 17일(이하 현지시간) 오후 수도 오타와 하원 내 회담장에서 퍼거스 의장과 회담했다.

김 의장은 먼저 이날 오후 캐나다 국립현충탑에 헌화 및 참배했다. 캐나다 국립현충탑은 제1·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등에 참전했던 캐나다 인명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해 1982년 세워진 기념물로, 현충탑 상부에는 평화와 자유를 상징하는 조각이 있고, 그 아래로 전장에서 싸우는 22명의 캐나다 군의 동상이 있다.

김 의장은 헌화를 마친 후 하원 회담장으로 이동해 퍼거스 의장과 회담했다. 김 의장은 회담 직전 캐나다 국립현충탑에 참배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캐나다는 한국전쟁 당시 미국·영국 다음으로 많은 군인(26,791명)을 파견해 한반도 보지도 듣지도 못한 나라'의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 헌신하고 희생했다"며 감사사를 표했다.

김 의장은 이어 "양국은 민주주의·인권과 같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이자 국제무대에서 유사한 입장을 갖고 글로벌 이슈에도 함께 대응해온 우방국"이라며 "최근 2

년간 양국 정상들의 교차 회담이 이뤄지는 등 양국 관계가 더 가까워지고 있는 만큼 이제 의회 차원에서 정부간 협력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밝히고 "양국 의회간 협력이 더 활발히 이뤄지기 위해 캐나다-한국 의원친선협회가 정식 의원의교협회로 승격할 수 있도록 지원해줄 것"을 퍼거스의 장에게 당부했다.

퍼거스 의장은 이에 김 의장과 대표단의 방문을 환영하면서 지원부국인 캐나다는 녹색수소, 전기차 배터리 등 친환경 분야에서 한국 기업과 공동체 전문성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고 양국 간에 이해관계가 부합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양국이 함께 병영·상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온타리오 주 전기차 배터리 공장의 원활한 건설에 필수적인 한국 엔지니어에 대한 한시적 근무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퍼거스 의장의 관심을 당부하는 한편, ▲캐나다 측에서 검토하는 신형 잠수함 도입 사업에 경쟁력 있는 한국 기업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퍼거스 의장은 이에 전기차 배터리의 중요성에 대해 잘 알고 있고 모든 것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며 "한국 기업에서도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길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또한, 자리에 동석한 크랩프-뉴먼 하원의원도 잠수함 조달 문제와 관련해 관심을 표명했다.

한편, 김 의장은 퍼거스 하원의장을 한국에 초청했다. 퍼거스 하원의장은 이에 기쁜 마음으로 관련 업무를 처리하겠다고 반드시 한국에 방문해 한국 국민에게 인사드리고 싶다고 화답했다. 국회=김성규기자

# 5만 자족도시 기반 조성 가시화

## 김돈곤 충남 청양군수, 정례브리핑 통해 “충남도 4개 기관 순조롭게 추진 중”

충남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민선 7, 8기 군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유지한 4개 공공기관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18일, 대회의실에서 4월 정례브리핑을 가진 김 군수는 민선 7, 8기 청양군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유지한 4개 공공기관이 순조롭게 조성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김 군수가 추진 경과를 발표한 4개 공공기관은 ▲충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충남 기후환경 교육원 ▲충남 학생건강증진 통합교육 체험관 ▲충남 소방복합시설이다.

또한, 5월말 발표가 예정된 충남 산림자원연구소도 반드시 유치하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우선, 첫 번째로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은 총 280억 원이 투입,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도내 사회적경제기업 및 지원조직 약 48개소가 입주하는 등 충남도 사회적경제의 산실로 자리매김할 기관이다.

청양군은 2019년 3월 아산시, 서천군과 경쟁하여 혁신타운 조성 후보지로 선정되었고, 많은 노력과 우여곡절 끝에 ‘농촌형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이라는 청양군만의 특색있는 모델로 2020년 4월 산자부 심사를 거쳐 유치에 성공하게 되었다.

현재 혁신타운의 공정률은 약 40%로 올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오는 12월에 준공 및 내년 상반기 중 개소예정인 약 48개의 기업이 입주하여 500여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도내 1,500여 개 사회적경제기업의 네트워크와 인적·물적자원의 거점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이 기대된다.

현재, 충남도 내 사회적경제조직의 각종 행사와 워크숍 등 유동인구가 증가하고 혁신타운과 연계한 다양한 사업 발굴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상 1층은 메이커스페이스, 전시공간, 카페 등, 2층은 교육실, 회의실, 수공예실, 영상제작실, 3층과 4층은 입주기업 사무실 및 회의실, 공유공간, 라운지 시설, 하늘정원이 들어설 예정이다. 건물외부도 사회적경제 활동과 이벤트 공간, 플라마켓 공간 등 주민들에게 열린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향후, 충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은 중부권 사회적경제의 허브로 전국 최초의 농촌형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의 성공적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 충남 기후환경교육원은 지난 2021년 칠갑산 휴양랜드에 위치한 도 단위 교육기관으로 2050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국가적 과제 속에서 의미가 매우 큰 기관이다.

기존의 칠갑산 휴양랜드는 숙박중심 가족위주 관광시설로 2013년 조성되었으나 이용객 수가 계속 감소하면서 매년 3~4억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애물단지 시설이 되었다.

특히, Par3 골프장과 사계절 썰매장 이용률이 현저하게 떨어졌는데 이런 상황에서 대치면에 27홀 규모의 골프장이 조성될 계획으로 휴양랜드의 골프장과 썰매장은 더욱 이용률이 떨어져 적자의 폭이 커질 것이 뻔한 상황이었다.

이에, 청양군은 칠갑산 도립공원과 지천을 중심으로 우수한 자연환경과 생태자원이 풍부하고 충남의 지리적 중심지로 각종 환경관련 기관들이 입주하기에 최적지라는 논리로 치열한 경쟁을 뚫고 마침내 지난 2021년 유치하게 되었다.

지난달 13일 착공식을 거쳐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건축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충남 기후환경 교육원은 탄소배출제로 체험 등 친환경 생활을 학습하는 ‘숙박형 교육시설’로 연면적 4,358㎡ 규모의 교육관과 생활관, 그리고 탄소제로 체험관 및 전시관, 캠핑장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내년 6월 준공이 되면 상근인력 160여 명의 일자리 창출과 연간 2만여명의 교육생이 다녀가는 등 약 1,500여원의 경제효과가 유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세 번째, 충청남도 교육청의 (가칭)충남 학생건강증진 통합교육체험관은 지난 2021년에 (구)장평중학교 폐교부지에 유치되었으며, 2025년 준공 및 개관을 목표로 진행중에 있다.

학생의 건강 문제 예방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통합교육과정 운영의 필요성과 함께 지리적 접근성, 사업추진 효율성, 지역 교육 균형 등을 고려하여 구장평중학교가 선정되었다.

총사업비 168억원으로 부지면적 19,427㎡, 건축연면적 3,421㎡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규모로 조성중에 있다.

올해 2월 건축공사 설계 완료하였고, 4월 중 전시체험콘텐츠 제작설치 설계를 완료한 후, 오는 6월에 착공해 2025년 6월 준공 및 7월에 개관할 계획이다.

연간 약 3만 5천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 균형발전과 함께 일자리 창출 및 푸드플랜을 연계한 상생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네 번째, 충남 소방복합시설은 비봉면 녹령리, 사지리 일원에 조성하고 있고 총면적 38만 9천여 제곱미터(약11만평), 총사업비 810억 2천만원의 사업이다.

충청소방학교와 119항공대, 장비정비센터 등 10개 건물이 건립되는 충남도내 소방관련 최대 규모 사업이다.

충청의 소방인은 물론 지역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교

육복합문화시설로 조성될 예정으로 특히, 청양군의 인구증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016년, 충남의 각 시군과 치열한 경쟁 끝에 청양군으로 선정되었고 각종 설계, 문화재 발굴조사 등으로 5년이 지난 2021년 12월 27일에 기공식을 개최하였다.

현재 내부 마감, 조경공사, 부지 포장공사가 진행중으로 91.5% 정도 공정이 이루어졌다.

오는 6월 준공 후 8월부터 기관입주를 계획하고 있으며, 입주기관 근무 예정인력은 충청소방학교 62명, 119항공대 26명, 장비정비센터 7명으로 총 95명이 근무할 예정이다.

충남소방복합시설을 이용하게 될 연간 소방인구는 충남 1만 4천 8백명, 충북 7천 3백명, 대전 2천 8백명, 세종 1천 3백명 등 총 2만 6천 2백명이다.

충남소방복합시설이 완공되면 청양군 인구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청양군 성장동력 확보에 화룡전정이 될 충남 산림자원연구소는 충남도 산하 기관으로서 입입 시험 연구는 물론, 자연휴양림과 수목원 등을 조성해 충청권 도민들에게 치유와 문화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김 군수는 이번 브리핑을 통해 다시 한번 충남 산림자원연구소의 청양군 유치 의지를 확실하게 드러냈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충남도의 이전 후보지 공모 계획에 맞춰 총실히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운식물원을 활용한 새로운 식생조성 기간 및 비용을 단축하고, 서부내륙고속도로 등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춘 도민 산림복지의 중심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칠갑산도립공원, 자연치유센터, 기후환경교육원과 연계 시너지 창출 등을 청양군의 강점으로 하여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충남도의 최종 결정이 있기 전까지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군민 의지를 결집해 반드시 유치에 성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현재, 청양군의 핵심 성장동력 사업인 4개 공공기관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 충남 산림자원연구소까지 청양으로 유치한다면 인구 5만 자족도시 조성의 큰 그림은 대부분 완성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굵직굵직한 동력사업 등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역변화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행정참여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고 강조했다.

청양=정성범기자

## 청년마음건강연구소 C.LAB 씨랩



내 마음도 미리 검진하세요 [ 성향검사 / 팀빌딩 / 강연 / 온라인상담 ]

instagram 인스타 @c.lab\_\_\_\_\_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씨랩마음단지

1. 개인  
온라인성향검사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 1대1상담  
진로상담, 성격상담, 심리상담

2. 팀  
팀빌딩 (MBTI / 버크만)

3. 강연/강의 (학교/복지센터/센터/중소기업/기타단체)  
진로 / 스트레스 / 마음건강기획\_테마에따른 / 성향, 성격 등



문의)  
네이버톡톡/인스타 DM  
메일 - clabclab\_10@naver.com  
문자, 전화 - 070.8098.1834



● 특 정 ●

충청남도 장애인 날 기념식



김태흠 충남 도지사는 19일 오전 10시 40분 금산종합체육관에서 열리는 제44회 충청남도 장애인 날 기념식에 참석.

제44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김지철 충남 도교육감은 19일 오전 11시 금산종합체육관에서 열리는 제44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및 어울림대회에 참석.

예산군 농업인 풍년기원제



최재구 예산군수는 19일 오전 9시 30분 응봉면 후사리에서 열리는 예산군 농업인 풍년기원제 참석.

제2회 위원회



이용록 홍성군수는 19일 오후 1시 30분 군청 회의실에서 열리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촉식 및 제2회 위원회 참석.

집중호우 대비 배수문 주변 정비

예산군 삼교읍(읍장 이종선)과 삼교읍 자율 방재단(단장 최승준)은 여름철 자연 재해에 대비해 18일 행정복지센터 배수문 관리 담당자와 자율 방재단원 37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내 배수문(12개소) 주변을 정비했다.

매년 계속되는 여름철 호우·태풍 등 대비 삼교읍에서 관리하는 배수문 12개소 주변의 갈대와 수목을 제거하고 쌓인 토사를 치우는 등 자율 방재단과 민관 협동으로 선제적 재난 예방 활동을 펼쳤다.

이종선 삼교읍장은 "앞으로도 많은 자연 재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배수문 관리 담당자를 활용해 사전에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민관이 협력하는 가운데 관내 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총 33명으로 구성된 삼교읍 자율 방재단은 지난 폭설에도 주요 도로변 제설을 펼치는 등 각종 재해예방과 복구 활동에 앞장서고 있으며, 평소에도 동영상 교육을 통한 안전 예방 및 예방 활동 등 재난 예방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예산 = 박재화 기자

남양유업 세종공장 현장지도

세종소방서

세종소방서(서장 김상진)가 지난 17일 화재 발생 시 큰 피해가 예상되는 중점관리대상에 속한 남양유업 세종공장을 방문해 현장 안전을 확인·지도했다.

이번 현장지도 방문은 화재 예방을 강조하고 관계인의 안전의식을 높여 인명피해 방지 및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마련됐다.

주요 지도내용은 ▲공장 현황 청취 ▲화재안전관리 실태 확인 및 안전 컨설팅 ▲주요시설 현장확인 ▲소방 관련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 청취 등이다.

김상진 세종소방서장은 "남양유업은 화재안전 중점관리 대상이므로 화재 예방과 취약 요인 점검 등 안전관리와 함께 상황 발생 시 초기 대응능력 확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태선 기자

# 6년 전 가격 파격 분양 아파트 첫 삽

## 내포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첫 사업 착공... 84㎡형 949세대 공급



충남도가 초저리호 보증금을 대 출받고, 싼 임대료로 거주하다 6년 전 분양가로 구입할 수 있는 아파트 건립 공사에 본격 돌입했다. 도는 내포신도시 한울초등학교 인근 RH16블럭에서 김태흠 지사와 김지철 도교육감, 이용록 홍성군수, 김동곤 청양군수, 최재구 예산군수,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첫 사업 기공식을 개최했다.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는 신혼부부와 청년 등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과 주택 마련 기회 제공, 저출산 위기 극복 등을 위해 민선8기 공약으로 추진 중인 분양 전환 공인대주택 공급 사업이다.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은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30대 이상 다자녀 가족과 신혼부부 등이다. 입주 보증금은 1억 6000만 원으로, 희망할 경우 전액의 80%를 1.7%까지 초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으며, 임대료는 월 18만 원 안팎으로 저렴하다. 도는 충남형 리브투게더에 6년 거주할 경우, 일반 아파트를 임대했을 때보다 금융 비용만 4000만 원 이상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는 특히 6년 동안 거주하면 입주자 모집 공고 시 확정된 가격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다. 입주자 모집 시 정한 분양가가 4억 원이라면, 6년이 지난 뒤 같은 규모의 아파트 시세가 5억 원으로 1억 원 올랐더라도 4억

원에 분양받을 수 있는 셈이다. 일반 아파트의 경우 건설사에서 옵션으로 입주민에게 부담시켜온 발코니 확장이나 시스템 에어컨 구입·설치 비용도 분양가에 포함, 입주민들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사업을 통해 내포신도시(홍성)와 천안, 공주, 아산, 청양 등에 2026년 까지 총 5000세대(전세대 84㎡·옛 34형)를 공급할 계획이다. 내포신도시 첫 사업은 6만 8271㎡의 부지에 건축면적 16만 285㎡, 지하 1층, 지상 18~25층이며, 공급 규모는 949세대다. 이 아파트 단지 내에는 어린이 집과 작은도서관, 독서실, 다함께 돌봄센터, 키즈스테이션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마련, 최적의 유아 환경을 제공한다. 또 시너스러운 지, 빌더룸, 게스트하우스, 운동시설, 그린카페 등도 설치하며, 주차장은 세대 당 1.46대로 편의성을 높인다. 입주민 모집 공고는 오는 8월 6일 예정이며, 2026년 준공과 함께 입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도는 내포신도시 첫 사업을 통해 △무주택 서민 주거 사다리 복원 및 공공임대주택 한계 극복 △전세 사기 불안 해소 및 주거 환경 개선 △주거 안전망 구축 △내포 신도시 인구 유입 및 정착 지원 △공공기관 유치 등에 따른 인구 유입 대비 주택 공급 물량 확보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날 기공식은 경과 보고와 김태흠 지사 기념사, 시삽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결혼과 출산의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내 집 마련'이라며 "아파트 한 채 장만하는 것만으로도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이어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는 젊어서 적은 비용으로 살며 가정을 꾸리고 아이도 낳고, 특히 아이가 학교에 갈 때쯤에는 6년 전 시세로 내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라며 "임신·출산 기구에 대한 특별공급 비율도 현재 55%인데, 100%까지 끌어올려 젊은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내포를 시작으로 천안, 아산, 공주, 청양 등지에 리브투게더를 5000호 건설하고, 다른 지역에서도 벤치마킹하는 선도 모델로 키워겠다"라며 "리브투게더를 통해 '아이를 낳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지겠다'는 충남의 강한 의지를 실현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환 기자

# '안심 공중화장실' 조성가속화

## 홍성군, 78개소에 스마트 비상벨 설치 완료

홍성군이 공중화장실 이용객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안심 공중화장실'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10개소를 시작으로 단계적 비상벨 설치에 나섰던 군은 '충남형 안전한 우리 동네 만들기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관내 주요 공중화장실 78개소에 스마트 비상벨을 신규 설치하여 화장실 안전 인프라를 대폭 보강했다. 터치 방식으로 작동되는 비상벨은 신체 어느 부위로도 신고가 가능하며 비상벨이 작동되면 경보음이 울리고 경찰서 상황실과 양방향 연결이 가능하다. 비상상황 시 365일 24시간 원격 모니터링 및 지원이 가능하며, 정전 시에도 최대 10시간 비상 구동이 가능한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어 긴급 상황에도 신속 대응이 가능하다. 군은 연차별 로드맵에 따라 관내 비상벨 설치 확대, 불발촬영 수시점검, 안전거울 설치 등 화장실 범죄 사전 예방활동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유철식 환경과장은 "주민 누구나 안심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하겠다"라며 "적극적인 시설 투자와 제도 개선으로 '안심 공중화장실'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자



예산군 자원봉사센터(센터장 박상덕)는 지난달 신암면 신덕2리 마을회관을 시작으로 4월에는 삼교읍 신가3리 마을 회관에서 사랑의 전문 자원봉사단 활동을 추진했다. '사랑의 전문 자원봉사단 릴레이 활동'은 읍면 자원봉사 거점 캠프 활동기를 통해 관내 한 마을을 선정해 풍선 아트, 공예, 이월 요법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연속 추진하는 사업이며, 매월 셋째 주 월요일부터 넷째 주 금요일까지 10일간은 11월까지 총 8회에 걸쳐 추진된다.

## 세종시-산업부, 지역주도 균형발전맞머리

# 기회발전특구 등 지정 건의

세종시(시장 최민호)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인덕근)가 18일 산학연클러스터에서 '지역경제정책 세종 소통마당'을 열고 기회발전특구 등을 통한 지역주도 균형발전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승원 경제부시장, 오승철 산업부 산업기반실장, 양현봉 세종테크노파크 원장, 박각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단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산업부는 '기회발전특구' 도입에 따른 효과와 계획 수립 시 유의점 등을 안내하고 정부의 '산업단지 규제개선 방안'을 소개했다. 시는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 ▲세종형 기회발전특구 지정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고시 개정 건의 등 지역현안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고 건의 사항의 조속한 해결을 당부했다. 세종시와 산업부는 시가 건의한 내용 등을 바탕으로 소통마당 참석자들과 다양한 협력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승원 경제부시장은 "세종시는 국가산업단지과 미래전략펀드 조성, 다양한 기업 투자 및 유치 지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경제 지속도시로의 성장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나이가 시가 미래 신산업 육성 거점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산업부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김태선 기자

## 예산군보건소, 읍면 간호직 공무원과 간담회 개최

# 지역민 건강협력 강화 방법 모색

예산군 보건소는 지난 16일 보건소 건강실에서 읍면 간호직 공무원과 보건소 각 팀별 업무협업 등을 통해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2019년 주민 자치형 공공서비스 일환으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간호직 공무원이 처음 배치 후 5년차에 접어들고 있으며, 주요 역할을 돌아보고 현재 운영 현황, 타지역 현황 등을 살피면서 앞으로 보건소와 함께 나아갈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기초 생활 수급권자, 장애인, 환자치 등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의료비 지원 서비스부터 입산부터 출생 보건 서비스 내용을 공유했으며, 읍면 간호직 공무원이 방문 상담을 통해 지역민을 대면했을 때 대상자에게 적합한 보건 서비스와 연계할 수 있는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읍면에 배치된 간호직 공무원은 복지 인력과 협업해 통합사례 관리, 위기 가구 발굴, 찾아가는 복지 상담 등 지역민 맞춤형 건강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보건소 사업 전반을 읍면 간호직 공무원과 공유해 서비스 체계를 강화하고 공무원의 직무 역량을 높일 계획"이라며 "군민이 보건과 복지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예산 = 박재화 기자

# 예산군, 내포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 공급 개시

## 패적이고 자연친화적 생활 환경 제공 위해 총력

예산군은 갈수기를 대비해 내포 공공 하수 처리 시설에서 방류하는 처리수를 복리천, 신강천 상류에 일일 1만톤 규모로 4월부터 오는 11월까지 홍예 공원 징검다리 연못과 지미원에 공급한다. 환경부는 '물의 재 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 내 물 재 이용을 종량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해 수자원 활용 효율성을 높일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에 군은 내포 공공 하수 처리 시설에서 처리된 재 이용수를 방류 수질에 맞춰 일일 약 1만톤씩 공급 중이며, 날씨 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내포 신도시 홍예 공원 내 징검다리 연못과 지미원은 용방산 지류에서 내려오는 자연수 유입이 매우 적은 실정이며, 군은 두 연못의 수질 및 수량을 유지하기 위해 내포신도시 계획 당시 내포 하수처리장 재 이용수를 홍예 공원으로 연결하는 4.3km의 관로를 설치하고 매년 갈수기에 재 이용수를 공급 중이다. 지난 3월 말 기준 내포 신도시 인구는 약 3만6500명으로 내포하수처리장 생활 하수량은 일일 약 1만3000톤이 유입됐다. 내포 하수처장은 현재 1단계 일일 2만2000톤 규모 용량을 처리할 수 있으며, 향후 인구 증가를 대비해 2단계 2만2000톤 총 4만4000톤을 처리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군 관계자는 "재 이용수를 활용해 하천을 유지하고 내포 신도시 주민에게 더 패적이고 자연 친화적인 생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예산 = 박재화 기자

# 홍성군 '3단계 상병수당' 군단위 전국 최초 수행

## 경제활동 어려운 근로자소득 보전 기회 제공

홍성군이 보건복지부에서 공모한 '3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군단위 전국 최초 수행 지역으로 선정되어 오는 7월부터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상병수당은 업무상 재해가 아닌 일반 질병과 부상 발생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도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로, 질병과 부상으로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홍성 근로자들에게 회소식이 될 전망이다. 현재 10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홍성군을 비롯한 4개 신규 선정지(홍성, 원주, 전주, 충주)를 포함하여 오는 7월부터 총 14개 지자체로 확대 시행될 방침이다. 이번 시범사업의 신청 대상은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소득 하위 50%) 취업자(지역일자 포함)이며, 재택·외래·입원 등 요양방법과 상관없이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한다고 판정된 기간 동안 일 47,560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대기기간은 7일이며, 보장기간은 최대 150일, 최대 713만원까지 소득 보전금 지원이 가능하다. 김현기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상병수당 사업을 통해 아픈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사업이 차질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3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 선정은 사업추진 여건과 기반,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추진성, 추진의지 및 적극성 등을 종합 평가 결과가 반영된 것이며, 홍성군의 내실 있는 기본계획과 실행의지가 돋보였기에 가능했다. 김정환 기자

# 세종시, 지구의 날 소등 행사 오는 22~28일까지 열려

## 공동주택 중심 상가·가정에서 자율적으로 참여

세종시(시장 최민호)가 오는 22일부터 28일까지 '제16회 기후변화주간'을 맞아 시민과 함께 지구의 날 소등 행사를 열고 탄소중립 실천에 나선다. 4월 22일 제54회 지구의 날 당일에는 오후 8시부터 10분간 세종시청을 비롯해 시 소속 공공기관과 공동주택 등이 소등된다. 공공기관은 비상 전등을 제외한 모든 조명을 끄고 시민들은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상가, 가정에서 자율적으로 소등에 참여하게 된다. 기후변화주간 본행사가 열리는 27일 오전 10시부터는 세종중앙공



이밖에 시는 '기후변화주간 온라인 이벤트'를 열고 이벤트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모바일 유료 쿠폰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벤트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탄소포인트 가입 사진, 소등행사 참가 사진, 걷기·자전거·버스타기 인증사진을 시 누리집에 게재한 정보부녀(QR코드)로 전송하면 된다. 권영석 환경복지국장은 "탄소중립은 우리의 선택이 아닌 지구의 생존에 필수적인 요소"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탄소중립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실천적인 노력을 보다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태선 기자

우리/동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충남본부 · 당진상공회의소 공동

# ‘제조업 CEO 안전 아카데미’ 개강



천안청년센터 인사이음 공간기획단

## 현장 방문 및 간담회 가져

천안시는 지난 17일 안서동 일원에서 천안청년센터 인사이음 공간기획단 현장 방문 및 간담회를 가졌다. 시는 그동안 공약사항인 권역별 특화형 청년센터 확대를 위해 인사이음 조성을 추진해 왔으며, 올해 2월 민간건물을 임차하고 9월 개소를 목표로 현재 시설설계용역을 진행 중이다.

5개 대학교(단국대·백석대·백석문화대·상명대·호서대)가 있는 안서동 일원에 청년들을 위한 소통과 문화공간인 인사이음을 조성해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대흥이음, 불당이음과 함께 향후 다양한 청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청년담당관은 설계단계부터 청년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천안청년센터 직원과 5개 대학교 학생대표들이 참여하는 공간기획단을 구성했으며, 앞으로 인사이음의 공간 구성뿐만 아니라 운영 프로그램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천안=이정복기자



천안과학산업진흥원-강릉과학산업진흥원

## 스타트업 발굴 육성 위해 협력

(재)천안과학산업진흥원(원장 황규일, 이하 진흥원)은 18일 강릉과학산업진흥원에서 (재)강릉과학산업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지역 소재 기업의 과학기술 사업화 지원 및 미래 성장 동력과 스타트업 발굴 육성을 위해 공동 협력하고자 하는데 있다. 세부 협약 내용은 ▶지역사업 발전을 위한 상호 정보 및 기술교류 ▶공동 과제 발굴 및 수립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의 상호 이용 등이 있다.



성거음행복키움지원단, 간담회 및 복지 사각지대 발굴 캠페인 성거음 행복키움지원단(단장 신영규)은 18일 2024년 1차 간담회 및 복지 사각지대 발굴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는 신규단원 위촉, 24년 신규사업, 사회적고립 1인 가구 및 고독사 위험군 발굴방법 등을 논의했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지청장 최종수)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충남지역본부(본부장 이준연), 당진상공회의소(회장 신현덕)와 공동으로 지역 제조업체 CEO들의 안전 경영 역량을 높이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제조업 CEO 안전 아카데미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CEO 안전 아카데미는 충남 북부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철강 및 자동차산업의 중견기업 CEO 25명이 참여하며, 4월 18일 개강식을 시작으로

두 달 동안(격주, 총 16시간) 운영된다.

주요 내용은 철강 및 자동차 산업의 특성에 따른 안전관리 사례, 사업주와 근로자가 바라보는 안전 문화,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요소인 위험성평가 기반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각 주제에 맞는 해당 분야 최고의 현직 전문가·대학교수들로 강사진을 구성했다.

특히, 의미가 있는 것은 산업재해 예방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실현

하기 위해 지역의 관계기관이 힘을 모으고 역할을 나누어 공동으로 운영한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아카데미를 기획 및 관리, 안전보건공단 충남지역본부는 강사 섭외 및 운영, 당진상공회의소는 장소 제공 및 운영 지원을 맡기로 했다.

안전보건 노하우를 단순히 지식으로 전달하는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정보와 인식들을 소통과 교류의 장에서 함께 나누으로써 CEO들이 스스로 안전보건경영에 대해

새로이 생각해 볼 수 있고, 조직문화 개선 등 실질적인 사업장 안전 문화 정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종수 천안지청장은 "이번 철강 자동차 산업 CEO 안전 아카데미가 CEO 스스로 안전경영을 실행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되고, 소통할 수 있는 '안전 사랑방'이 되어 지역 동종업계의 자생적 안전경영 활동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천안=이정복기자

### 동정

#### 기념대회



박상돈 천안시장 = 19일 오전 10시 천안어린이꿈누리터에서 열리는 천안 독립만세운동 제105주년 기념대회 및 재현행사에 참석.

#### 천안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 간다! 등굣길캠페인 성황

천안시청소년재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이번 달 30일까지 관내 9개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등굣길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등굣길캠페인은 새 학기를 맞은 청소년들의 학교 적응력을 도모하고 학교폭력에 예방 캠페인을 통한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했다.

캠페인 참가자들은 청소년상담전화 1388에 대한 소개가 담긴 홍보물과 간식을 나눠주며 등교하는 학생들을 격려하고, 또래상담자 청소년들과 함께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활동을 진행했다.

김미영 교육청소년과장은 "이번 등굣길캠페인을 통해 청소년들이 학교폭력 예방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는 건강한 학교생활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남동부보훈지청, (사)무릇누리과

#### 독립유공자 에어컨클린서비스 협약

충남동부보훈지청(지청장 이용기)은 지난 17일 재능기부 단체인 (사)무릇누리대표 홍찬선과 독립유공자(유족) 에어컨클린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양 기관(단체)는 독립유공자(유족)에게 삶의 질 향상과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한 에어컨 청소 및 주거환경개선 등 서비스를 제공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홍찬선 대표는 "대전 현충원에 호반도 장군의 유해봉환을 계기로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희생하신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보은과 예우를 위해 이번 재능기부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용기 지청장은 "독립유공자 유족을 위해 재능기부를 해준 무릇누리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민관이 협력해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복지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송병배기자

## 천안시, 도전에 도전을 더하는 '2024 미래비전단' 출범

2016년 이후 8번째...7급 이하 20~30대 공무원 25명으로 구성



천안시의 창의적인 정책을 발굴 하는 '2024 도전더함 미래비전단'

이 18일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미래비전단은 천안시가 시정 변화를 이끌어갈 미래 인재를 육성하고 젊은 공직자들의 창의적인 의견을 발굴하는 정책 연구모임으로, 7급 이하의 20~30대 공무원 25명 내외로 매년 새롭게 구성한다.

2016년 시작해 올해 8회차로, 기수마다 열정나래, 통통혁신, 상상누리 등 새로운 명칭을 부여함으로써 차별화된 운영을 시도하고 있다.

올해 출범한 '도전더함 미래비전단'은 5개 분과 등 총 25명으로 구성됐으며, 11월까지 분과별 토의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천안시 특성을 반영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할 예정이다.

박상돈 시장은 "미래비전단 활동을 통해 시정을 파악하고 참신한 정책을 발굴하는 데 주저 없이 도전해 주기를 바란다"며 "청년 공직자들이 천안시를 발전시킬 핵심 인재로 성장하는 데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천안시 삼룡천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착공

지역주민들과 내·외귀빈 등 200여 명 참석

천안시 삼룡천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착공식이 18일 지역주민들과 내·외귀빈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성천 하천구역 내에서 열렸다.

지난 2017년 7월과 2020년 8월 집중호우로 삼룡천 구성천 일대지역에 심각한 침수피해가 발생해

고통받았던 주변 지역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천안시가 행정안전부에 공모해 당선된 사업이다.

특히 공모사업 신청 당시 선정심의 위원들에게 박상돈 천안시장이 직접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절실하게 의견을 설득하는 등 공모사업 선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총사업비 520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사업으로 천안천에서 신성미소지움 아파트 옆 국도1호까지 2.39km의 하천정비와 교량 8개소를 재가설하는 공사이며 2026년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천안시 하천과장은 "이번 사업은 도심하천에서 진행되어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나 시민들과 시청의 긴밀한 협력 아래 추진된다면 어려



움을 딛고 재해예방은 물론 지역발전과 안전을 위한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하절기 방역 대비 기피제자동분사기 · 비래해충퇴치기 확충

등산로, 공원 등 기피제자동분사기 8대, 비래해충퇴치기 45대 추가설치



천변 산책로에 기피제자동분사기 8대(봉서산 등), 비래해충퇴치기 45대(천안천)를 추가 설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설치된 기피제자동분사기는 기기 중앙에 위치한 버튼을 눌러 얼굴을 제외한 겉옷·신발 등에 뿌리면 3~4시간 동안 약효가 지속

되는 기온 상승으로 해충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등산로 및 공원·하

수 있다. 또한, 비래해충퇴치기는 램프의 파장을 이용해서 해충을 유인해 방제하는 장비로 살충제를 사용하지 않아 인체에 해가 없어 친환경적인 물리적 방제이다.

천안시는 기피제자동분사기 68대, 비래해충퇴치기 165대가 설치돼 있으며, 앞으로도 매년 방역 취약지를 발굴해 확대 설치하고 사용

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런기 서북구보건소장은 "이른 기온 상승으로 해충의 부화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적극적인 방역을 추진할 예정이다"며 "시민들께서도 모기·진드기 등 각종 해충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야외활동 시 긴소매 옷 입기, 기피제 사용 등 예방수칙 준수에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천안=김정환기자

# 4월20일은 제44회 장애인의 날

## 한발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소장 남인수

대전 서구 둔산로 31번길 72 폴리뷰빌딩 6층



**동구, 건강생활실천 위한 금연·절주 합동 캠페인** 대전 동구(구청장 박희조)는 18일 동신중학교 일대에서 박희조 동구청장, 동구 보건소 직원, 동신중학교 관계자, 판매파출소 관계자, 사랑돌어린이집 관계자, 판매2동 통장협의회와 지역사회 보건의료체 위원 등 총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연 및 절주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충남교육청, 노사협력·갑질 근절을 향한 발걸음**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교육 현장의 갑질·음식·직장내 괴롭힘 근절과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동조합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18일 교육감 주관으로 직종별 노동조합 대표와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논산소방서, 우리 아파트 대피계획 세우기 캠페인** 논산소방서(서장 김경철)는 지난 17일 의용소방대와 함께 아파트 화재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우리 아파트 대피계획 세우기'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공주소방서 '어르신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성료** 공주소방서(서장 류일희)는 지난 17일, 심폐소생술 보급 확대 및 초기 심정지 환자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공주소방서 '어르신 심폐소생술 경연대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아산시 '이순신 축제' 안전관리위원회 개최** 아산시는 지난 17일, 시청 상황실에서 '아트밸리 아산 제63회 성웅 이순신축제' 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했다. '아트밸리 아산 제63회 성웅 이순신축제' 안전 관리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최종 심의했다.



**충남대병원 대전충청권역 의료재활센터, 2024년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충남대학교병원(병원장 조강희) 대전충청권역 의료재활센터(센터장 북수경, 재활의학과 교수)는 18일 오전 9시30분부터 대전충청권역 의료재활센터 1층 로비에서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2024년 재활센터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 30억대 사기 저지르고 쿠웨이트로 도주

## 한국·쿠웨이트·태국 공조로 12년 만의 송환 성사

12년 전 30억원 상당의 사기 범죄를 저지르고 쿠웨이트로 달아난 50대가 강제송환됐다. 경찰청은 사기 혐의 등으로 국외 도피 중인 A씨(58)를 17일 오후 5시30분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송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5월 국내 한 건설사의 쿠웨이트 법인과 거래한 것처럼 속여 피해자에게 27만달러(한화 약 30억원)를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건축 자재 납품을 요청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발주서를 작성해 마치 재발주가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이후 2012년 9월 A씨가 쿠

웨이트로 도주하자 관할 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기증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수배했고, 경찰청도 A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 수배를 발부받아 쿠웨이트 경찰과 함께 추적에 착수했다. 그렇게 12년이 흐른 지난달 29일 쿠웨이트 경찰이 인터폴 전문을 통해 한국 경찰청에 A씨를 검거했다는 소식을 전해 왔다. 지난달 27일 쿠웨이트 부바라크 알-카비르주에서 피의자의 은신처를 발견한 쿠웨이트 경찰은 잠복 끝에 외출을 위해 나서던 A씨를 체포했다. 그러나 검거 이후 송환 과정도 순탄치만은 않았다. A씨의 죄질 및 도주 가능성을 고려할 때 호송관

파견을 통한 강제송환이 불가피했으나, 한국과 쿠웨이트 간 직항편이 없다는 점이 문제였다. 양국 경찰은 제3국을 경유하는 '통과 호송' 방식을 협의했고, 항공 일정 등을 고려해 태국 수완나폼 공항에서 우리 측 호송관이 쿠웨이트 경찰로부터 A씨의 신병을 인수하기로 했다. 주쿠웨이트 대한민국 대사관은 경찰청의 요청에 따라 현지에서 쿠웨이트 경찰과 소통하며, 피의자를 호송하기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쿠웨이트 측의 호의적인 협조를 이끌어냈다. 경찰청은 피의자가 태국을 경유하는 동안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태국 이민국에 협조를

요청했고, 태국 이민국은 A씨가 공항에 머무는 7시간 동안 신병 관리에 협조하기로 했다. 태국 이민국과의 협의·설득 과정에서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관에 파견 중인 경찰 주재관과 한국 경찰청에 파견 근무 중인 태국경찰 협력관의 노력이 주효했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 2월20일부터 사기·마약 등 민생침해 범죄를 저지른 후 해외로 도피한 주요 도피사범을 대상으로 총 3단계 관리 등급(핵심·중점·일반)을 지정하고, 국내외 유관기능과 긴밀히 협업하며 도피사범 집중검거 및 송환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

"청양에서는 공중화장실 사용 걱정없어요!"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군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을 위해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및 여성안심벨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지난 17일부터 시작된 점검 활동은 5월 2일까지 3주간이며 군과 청양경찰서가 합동으로 추진한다. 이번 점검은 군내 취약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공중화장실 14개소에 대하여 불법 촬영 탐지장비를 활용해 공중화장실 내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하며 여성안심벨 외관 상태 및 정상 작동 여부, 외부 경광등 작동 여부 등을 점검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청양=경상범기자

daejeontoday.com

## 대전시, 4월~10월 오존경보제 시행

주요보·경보 발령시 외출 및 실외활동, 차량운행 자제 당부

대전시는 하절기 기온 상승으로 대기 중 오존(O3) 농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4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오존경보제를 시행한다. 오존은 눈, 코 등 감각기관을 자극하고 고농도로 장기간 노출 시기도 및 폐 기능을 약화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에 대전시는 오존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고농도 오존이 발생했을 때 시민들에게 신속히 알리는 오존경보제를 시행한다. 오존경보는 1시간 평균농도가

0.12ppm 이상이면 주의보, 0.3ppm 이상이면 경보, 0.5ppm 이상이면 중대경보가 발령된다. 대전시는 이를 위해 시와 보건환경연구원, 자치구에 경보상황실을 운영하고 오존 농도가 기준을 초과할 경우 대전지역을 동부(동구·중구·대덕구)와 서부(서구·유성구) 2개 권역으로 나눠 오존경보를 발령할 계획이다. 경보 발령 시 언론사, 학교 등 유관기관과 대기오염경보 문자메시지 서비스 신청자에게 팩스와 문자로 상황을 전파하고, SNS와 대

기환경정기관 등을 활용하여 경보 상황을 알릴 예정이다. 한편 대전시는 오존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 전기자전거 등 친환경 차량 보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을 통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과 저녹스버너 및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가스열펌프 냉난방기 개조지원 등 다양한 저감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오존 측정은 대전시 관내에 설치된 대기오염측정망 11개소를 통해 실시간으로 측정되며 오존 농도와 오존경보 발령사항은 에어코리아 누리집(<http://www.aikorea.or.kr>) 또는 모바일 앱(에어코리아)에서 시민 누구나 확인이 가능하다.

김태선기자

## 금산소방서, 심폐소생술 교육장비 대여 서비스 운영

생명 존중 문화 확산 기대

금산소방서(서장 김종욱)는 일반 가정, 사업장 등 모든 군민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교육장비 대여 서비스를 연중

운영한다. 심정지 환자는 최초목격자에 의한 신속한 응급처치가 생명을 향상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이에 응급처치 능력 향상과 생명 존중 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시키기 위

해 대여 서비스를 운영한다. 대여 장비는 CPR 교육용 마네킹, 교육용 자동심장충격기, 교육영상이 담긴 USB로 최대 5일 대여 가능하다.

금산=이정복기자

## 아산시립도서관 '한 책 함께 읽기' 도서 선정



해의 한 책'을 '어린이 지학년', '어린이 고학년', 청소년, 성인 분야별로 1권씩 선정했다. 투표 결과 ▲'어린이 지학년' 부문에 '아름이 수영교실'(신현경 지, 북스그라운드 출판) ▲'어린이 고학년' 부문에 '수상한 고물상'(박현숙 지, 북멘토 출판) ▲청소년 부문에 '오백년째 열다섯'(김혜정 지, 위즈덤하우스 출판) ▲성인 부문에 '메리골드 마음세탁소'(윤정은 지, 북로망스 출판)가 각각 선정됐다. 아산시립도서관은 선정된 도서

를 활용해 작가 초청 강연회, 독후감 대회, 한 책 연계 독서프로그램 등 다양한 행사와 독서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전유태 아산시립도서관 관장은 "아산시 올해의 한 책을 매개로 도서관에서 함께 소통하고 독서를 통한 문화적 경험을 공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립도서관 누리집(<https://ascslan.go.kr>)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아산=리량주기자

## 갤러리아타임월드, 봄내음 가득 담은 쇼핑 제안

갤러리아타임월드가 만연한 봄을 맞아 취향 저격 봄 아이템을 추천하고 다양한 팝업 행사를 통해 봄을 준비하는 고객 모시기에 나선다. 먼저 봄 아이템을 한층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이월 상품전이 매장 곳곳에서 주말 동안 진행된다. 지하 1층의 프랑스 럭셔리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퓨잡'에서는 작년 이월 상품을, 이탈리아 프리미엄 가방 브랜드 '피파드로'에서는 2021년, 2022년 이월 상품을 최대 50%까지 할인 판매한다. 7층의 프렌치 골프웨어 브랜드 '마틴골프'와 아웃도어 브랜드 '아이더'에서도 2023년 이월 상품을 최대 60% 할인 판매해 봄나들이, 봄 라운딩을 준비하는 고객들에게 합리적인 가격을 제안한다.

더불어 커지는 일교차로 옷차림 고민에 빠진 고객들을 위한 다양한 특집전도 마련했다. 4층의 영컨템포러리 브랜드 '시스티나'에서는 원피스·블라우스·재킷 특집전이 21일까지 이어지고 새롭

게 오픈한 자유로운 20대 감성의 영스트리트 패션 브랜드 '이프네'가 주말 동안 오픈 프로모션으로 20% 할인 판매와 함께 구매 고객에게 소정의 사은품을 증정한다. 8층 '다이프워크'에서는 봄/여름 셋업을 10% 할인 판매하고 '플라웨어'는 티셔츠와 레깅스 특가전을 주말 동안 진행한다. 여름 필수 아이템으로 뽀샤시한 캐주얼 신발 브랜드 '크룩스'에서는 '프링글스'와 협업한 '프링글스X크룩스 콜렉션'의 한정판 제품과 지비츠 참을 선보인다. 또한 지하2층 고메이494에서는 새로운 디지털 브랜드를 만날 수 있는 팝업 스토어가 진행된다. 소금빵과 봉어빵의 색다른 단란 조합, 팔소금 봉어빵을 만날 수 있는 '마망카페' 팝업 스토어가 25일까지 진행되고 광주에서 시작한 수제 디저트샵 '토라네코' 팝업 스토어에서는 고양이 발도장이 짝한 귀여운 치즈케이크는 5월2일까지 맛볼 수 있다.

송병배기자

## 2024 상반기 감염관리위원회

당진소방서, 구조·구급대원들의 감염관리 대책 마련



대원의 건강증진을 위해 마련되어 최장일 서장을 위원장으로 당진종합병원 구급지도의 등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위원회는 ▲2024년 상반기 구급 활동실적 및 코로나19 등 감염병 관련 출동현황 발표를 시작으로 ▲감염관리실 운용 및 관리 ▲의료폐기물 관리 및 처리 ▲구급대원 건강관리 및 감염방지 등을 중점 논의했다. 또한 위원회 개최 이후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현장 감염안전관리 향상을 위해 구급지도의 및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을 활용한 상반기 감염방지교육을 실시했다.

당진소방서는 지난 17일, 감염성 질병 및 유해물질 등에 접촉·노출 위험이 높은 구조·구급대원들의 감염관리 대책 마련을 위한 2024년 상반기 감염관리위원회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는 감염병 대응 관련 추진현황 공유 및 구조·구급

당진=최근수기자



**보령해경, 2024년도 상반기 해상종합훈련 실시** 보령해양경찰서(서장 김중진)는 소속 경비함정 9척 9명 대상으로 상반기 해상종합훈련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해상경비 공백을 방지하고자 2회차로 나누어 실시하며, 17일부터 2일간 300톤급경비함정 등 4척이 1차로 진행되고, 다음 달 2일부터 2일간 500톤급 경비함정 등 5척이 2차로 진행될 예정이다.

2024년 3분기 책으로 소통하여 공감하는 2024년 세대공감 함께 책 읽기

기간 2024. 4. ~ 12. 대상 남부권역 지역주민

내용 - 함께 읽기 책 둘러 읽기, 한 줄 명기북, 함께 읽히기 작가 도서 전시, 한 줄 명기북, 함께 토론하기 독서 토론

주최 주관 충청남도교육청남부청영교육원  
공동운영 금산도서관, 부여도서관, 서천도서관, 청양도서관  
문의처 041-730-7724 / cnbl.cne.go.kr

# 이주배경학생 맞춤 교육 지원 기반...교육실태 조사

# 대전교육청, 미래직업교육센터 개소식

신산업분야 미래인재 양성의 허브 역할 기대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서 심의·의결

다문화교육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 결석하는 학생에 대한 관리 방법을 개선하는 등 내년부터 체계적인 이주배경학생 교육 지원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0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의 25일 시행에 맞춰 다문화교육 실태조사와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교육부 장관이 체계적인 다문화교육 정책 수립을 위해 3년마다 이주배경학생의 국적 등 기본 현황과 교육 프로그램·시설·인력 현황, 진학·진로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교육 정책을 마련하고 학교 현장의 다문화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부 장관은 중앙다문화교육지원센터, 교육감은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 또는 지정·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중앙다문화교육지원센터는 다문화교

육 정책 연구·개발과 관련 사업 지원, 이주배경학생 학습 지원, 다문화교육 홍보·교육 지원 등을,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는 학교 현장의 다문화교육 지원, 다문화교육 담당 교원 연수, 지역 내 다문화교육 협력체계 구축 등을 수행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 결석하는 학생이 학교의 다음 학년도 출석 통보에도 계속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학교장이 다음 학년도에도 계속해서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법령 해석상 장기결석으로 인해 정원 외 관리 학생이 한꺼번에 정원 내로

편입되는 경우 반 편성, 성적 산출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다문화교육 실태조사와 지원센터 운영 근거를 마련했고 이를 바탕으로 이주배경학생이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주배경학생들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란다”고 말했다.

이정복기자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18일 대전산업정보고등학교에서 대전 시의회 의원, 직업계고 및 일반고 교장, 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직업교육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미래직업교육센터(이하 센터)는 교육부 신산업분야 직업계고 교육력 제고 지원사업으로 예산(100억)을 지원받고 자체예산(25억)을 추가 편성하여 총 125억으로 대전산업정보고등학교와 충남 기계공업고등학교에 각각 센터를 구축하여, 관내 직업계고와 일반고 및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미래산업 및 지역특화 산업 분야로 진출할 인재를 양성한다.

대전산업정보고등학교 부설 센터에는 신산업 분야반도체 장비, 스마트팩

토리, 로봇제어, 스마트제어) 첨단 기자재를 갖춘 공동실습실을 구축하고 기초과정(32시간) 및 심화과정(96시간)을 운영하며, 산학협력관에서는 방학 중 교원연수(30시간)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 부설 센터에는 지역특화산업(철도차량관리, 드론측량) 공동실습실을 구축하여 기초과정(32시간) 및 심화과정(92시간)과 방학 중 교원연수(30시간) 과정을 운영하고, 직업교육체험관에서는 특성화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실습 직전 산업안전과정(6시간)과 중학생 대상 직업교육 체험프로그램(6시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김정환기자

## 청양교육지원청, 2024 라온 배움교실 운영



청양교육지원청, 2024년 라온 배움교실은 지난달 29일, 진기성 교육장이 7명의 봉사단체에 위촉장을 수여한 후, 4월부터 청양 관내 정산 지역아동센터, 청양 지역아동센터, 화성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기초학습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보령 청라초, 학교자율특색과정 세계철 청라지속발전소

## 봄학교 ‘청라 창의탐구연구소’ 문을 열다

청라초등학교(교장 박은숙)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 간 학교자율특색과정 봄학교 청라 창의탐구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청라지속발전소로 알뜰달록 꿈·끼 물들이기’라는 주제로 학교자율특색 과정을 운영하는 청라초등학교는 교육공동체 모두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생들이 사계절 삶의 가치를 맛보고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봄, 여름, 가을, 겨울학교’ 주간을 구성했다.

이번 봄학교 주간에는 ▲ 15일 과학 꿈나무 축제 ▲ 15일부터 16일 작가와의 만남 ▲ 16일 매직사이언스콘서트

▲ 17일 수학과 전해지는 날 ▲ 18일 장애이해교육 ▲ 19일 등·시·다·발 & 꿈드림 일일카페 ▲ 15일부터 19일 별 볼 일 없는 도서관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박은숙 교장은 “학교자율특색과정으로 운영하는 이번 봄 학교 주간은 모든 교직원 이 오로지 청라초등학교 학생들을 생각하며 함께 계획하고 준비한 만큼 이 시간을 통해 아이들 모두가 얹·삶·어울림의 즐거움을 기질 수 있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배움의 즐거움으로 함께 성장하는 행복 청라교육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국립대전술체원, 대전시 고립·은둔 청년 마음 건강 회복 프로그램

## 1인가구 청년 대상 ‘마음 챙김’ 숲 캠프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남태현) 국립대전술체원은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대전에 거주하는 1인 가구 청년들을 위한 숲체험 힐링 캠프를 운영했다.

이번 캠프에서는 ▲공동체 만들기 활동으로 협동심과 창의성을 기르는 ‘팀빌딩(영어표현) 카프라 쌓기’ ▲탄소중

립과 함께 숲이 주는 힐링을 느껴보는 ‘탄산수에서 시작하는 탄소중립’ ▲복재 활용해 몸의 즐거움과 성취감을 느끼는 ‘뚝뚝뚝 숲 울림 공방’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이영록 대전술체원장은 “대전 지역 1인 가구는 38.5%로 전국 1위를 차지하고, 그 절반이 청년에 해당한다”며, “1인 가구 청년 대상 산림복지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송병배기자

## 부여학부모지원사업 안내 및 학부모협의회 구성

부여교육지원청, 관내 초·중·고 학부모회장 40명 대상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배)은 지난 4월 12일(금) 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초, 중, 고 학부모회장 40명을 대상으로 2024학년도 부여지역 학부모지원 사업을 안내하고 학부모협의회를 구성했다.

관내 학교 학부모회장 및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학부모 정립교육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교권침해 예방 연수를 시작으로 2023년 진행된 다양한 학부모교육 및 참여형 연수, 단위학교 지원사업에 대한 안내를 진행하였다. 또한 2024학년도에 실시될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 강화, 학교 참여 활동을 위한 세부 사업을 안내했다.

부여학부모회는 2024년 새로운 임원진 구성과 추진사업 그리고 학부모회의 역할과 효율적인 운영을 논의하였다. 학부모협의회 회장에는 신성란(부여고등학교), 부회장 이유진(대왕초), 배정임(용강중), 영광의(부여정보고등학교), 사무국장 이정은(송간초), 감사 노미자(백제중), 간사 백명기(홍산중) 학부모님이 각각 선출됐다.

김영배 교육장은 “부여 학부모협의회가 교육의 동반자로서 부여교육의 발전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하고 학부모의 학교참여가 독려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부여=김성구기자

세종시교육청, 각급 학교·직속 기관 등 계약담당자 260여 명 대상

## 초급 계약 실무 및 학교장터 활용 연수

세종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은 19일에 세종시교육청 교육원에서 각급 학교, 직속 기관 등 계약담당자 260여 명을 대상으로 ‘초급 계약 실무와 학교장터(S2B) 활용 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각급 학교 계약업무 담당자들의 업무 이해도 증진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수준별 맞춤형 실무 교육으로 진행된다.

세종시교육청은 계약 실무 경험이 풍부한 세종시교육청 소속 직원과 학교장터 전문 강사를 초빙했으며, 연수는 업무담당자의 원활한 이해를 돕기 위해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서 진행한다.

오전 강의에서는 계약 실무 경험이 풍부한 세종시교육청 소속 직원이 계약 및 지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7급 이하 저

경력 공무원을 대상으로 나라장터(G2B) 사용법, 예유과인 계약관리 시스템 사용법, 계약 기초 이론 등에 대한 실무 중심 교육을 실시한다. 오후 강의에서는 학교장터 전문 강사가 학교장터(S2B) 활용과 관련한 ▲시스템 개선사항 ▲시스템 이용 방법 ▲예유과인 연계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다.

이후, 세종시교육청은 공공 구매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구매제도 활용, 지역업체 우선 계약 권장 등에 대해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세종시교육청은 계약업무담당자들의 업무 부담감 해소와 계약업무 지원을 위해 수준별 계약연수, 직급별 계약연수 등을 활발히 추진할 예정이다.

세종=김태선기자

금산교육지원청, AI 시대 선도할 청소년들의 융합적 사고와 창의력 발휘

## 충남청소년과학페어 디지털 융합과학 금산군대회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범연)은 4월 17일 금산교육지원센터에서 관내 중학생 8명 16명을 대상으로 ‘충남청소년과학페어 디지털 융합과학 금산군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IT기기와 AI도구를 활용하여 일상생활 속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대회이다. 특히, 팀원 간에 협업과 소통을 중심으로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여 프로젝트에 대한 융합적 사고능력과 창의적 문제해결력을 함양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참가 학생들은 회상에 지속 가능한 도시를 에너지, 식량, 거주 환경 측면에서 창의적으로 설계하는 과제를 수행했다. 팀별로 회상 도시 설계를 위한 아이디어를

발상하고, 설계도를 작성하며,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며 문제를 해결해나갔다.

금산교육지원청 이범연 교육장은 “AI 시대를 살아갈 청소년들에게 융합적 사고와 창의력을 함양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학생들은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핵심 역량을 키울 수 있었을 것”이라며 대회의 의미를 강조했다.

금산교육지원청은 “청소년들의 과학적 사고력과 창의력을 함양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산=이정복기자



예산도서관 봄 소리는 제60회 도서관주간 집중행사성로 예산교육지원청 예산도서관(관장 류미정)은 제60회 도서관주간을 맞아 17일 하루 동안 도서관 앞마당에서 <봄 소리는 북 토크 콘서트>, 체험, 놀이, 전시 등 12종의 다채로운 행사를 운영했다.

## ‘화재 시 피난 훈련과 소방 훈련’ 실시

서도초, 방화셔터에 비상문·옥상 자동 개폐장치 이용한 실제적 소방훈련



서도초등학교교장 김미애)은 지난 4월 17일 전교생 및 전 직원을 대상으로 화재 시 피난 훈련과 소방 훈련을 실시하였다.

서도초는 평소 옥상 출입문을 잠가 놔다가 화재 발생 시 자동 개방이 되도록 옥상 출입문에 자동개폐 장치와 방화셔터가 설치되었다. 하지만 우리 학교

학생들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방화셔터와 옥상 출입문 개폐 장치에 관한 쓰임새를 모르고 있다. 따라서 이번 소방 훈련은 ▲방화셔터에서 비상문 찾아 탈출하기 ▲옥상 대피 훈련에 중점을 두었다.

이번 훈련을 통해 학생들은 방화셔터의 비상문 위치를 확인하고 몸으로 밀거나 당겨 밖으로 탈출하는 것과 중간층 또는 위층에서 화재 발생 시 학교 옥상으로 대피 하도록 실제적인 체험을 경험했다.

학생회장 김준순(6학년) 학생은 “항상 잠겨있던 옥상 문이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고 방화셔터에는 비상문이 있다는 사실이 신기하기도 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학교에 감사하다. 오늘 배운 훈련 내용을 부모님께도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정복기자

## 아산폴리텍대, 도제학교 전담자 간담회

서도초, 방화셔터에 비상문·옥상 자동 개폐장치 이용한 실제적 소방훈련



한국폴리텍대학교 아산캠퍼스(학장 김용목) 고교단계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지원단은 17일 충남지역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관계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한국산업인력공단 최윤숙 부장을 비롯하여, 천안공고, 서산공고, 논산공고, 장항공고, 예산전자공고, 부여전자고, 홍성공고, 천안상고, 당진정보고, 강경상고, 논산여자상고 총 11개 도제학교 전담교사와 HRD 담당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한국폴리텍대학교 아산캠퍼스 고교단계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지원단의 24년도 사업추진

계획 공유 및 지역 내 도제학교 전담자 간의 소통의 시간으로 진행됐다. 특히, 올해 처음 지원단 주관으로 시행되는 ‘신기술 체험 캠프’는 현재 한국폴리텍대학교 아산캠퍼스에서 진행 중인 국민모두를 대상으로 기술교육과 체험학습을 지원하는 ‘꿈드림 공작소’와 연계하여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혀 기대를 모았다.

박인문 천안공업고등학교 센터부장은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도제학교 학생들의 꿈을 지원하는 아산폴리텍 지원단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다”며, “무엇보다도 일하면서 대학에 진학하여 전문학사 취득까지 가능한 고숙련 일학습병행(P-TECH) 과정은 도제학교 졸업 후 학생들의 진로 설정과 학습 동기부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용목 학장은 “도제학교 학생들에게 미래에 대한 다양한 비전을 제시하여, 지역의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산=리량주기자



# 국방우주분야 선도 '제2차 국방우주세미나' 성료

### 국립한밭대, '해양영역인식 체계'와 '국가우주 인재양성'을 주제로 전문가 발표·토론 진행

국립한밭대학교(총장 오용준)는 지난 16일 교내에서 국방·우주분야의 민·관·군·산·학·연 전문가와 관계자 약 220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기술과 우주 산업분야 선도과 인재양성을 위한 '제2차 국방우주세미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국립한밭대 오용준 총장, 양용모 해군참모총장을 비롯한 전직 해군참모총장, 호원대 오경원 교수, KAIST 우주연구원장 한재홍 교수 등 국방·우주 관련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석했다.

금번 세미나는 '해양영역인식(MDA) 체계'와 '국가우주 인재양성'이라는 2가지의 큰 주제를 가지고 전문가 발표 후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했다.

먼저 1부에서는 호원대 오경원 교수가 '국가차원의 해양영역인식(MDA) 체계 발전방향'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 후, 국립한밭대 양민수 교수, 호원대 오경원 교수, 국방대 배학영 교수, 해군사관학교 인경환 교수, 항공대 오현우 교수, 해군본부 공방부 우주발전과장이 참여한 가운데 전문가가 토론이 이어졌다.



2부에서는 KAIST 우주연구원장 한재홍 교수가 '국가우주 인재양성 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으며, 국립한밭대 김건희 교수, KAIST 한재홍 교수, 경희대 박수종 교수, 한국전문연구원(KASI)이재진 본부장, 방위사업청 이훈 사무관, 한화기술연구소 고정호 센터장, LG 벡스원 조영석 연구위원이 전문가 토론을 펼쳤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국립한밭대 국방우주공학과 김건희 교수는 "2회의 전문가 주제발표와 전문가 토론, 청중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참석자들은 우리나라 국방우주산업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으며, 앞으로도 지역

의 우주국방기술 연구 및 인력양성의 허브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민·관·군·산·학·연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립한밭대는 최근 교육부가 주관하는 글로벌대학30 사업에 충남대와 함께 예비지정 대학으로 선정됐으며, 혁신기획으로 초격차 R&D 연구를 선도할 특성화 분야로서 대전시 4대 미래전략 산업인 ABCD(Aerospace 우주항공, Biohealth 바이오헬스, Chip 반도체, Defense 국방) 분야와 연계해 '의약바이오'와 '국방융합' 분야 중심으로 딥테크 기술 발굴부터 맞춤형 사업화까지 전주기 지원 거버넌스 구축에 나서, 대학이 지역전략산업 육성의 Think Tank로서의 역할을 넘어 Action Tank로 기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 앞서 오전에는 국립한밭대, 국립목포해양대, 국립한국해양대, 경희대, 세종대, 충남대, 한국항공대, 한양대, 해군대학, 해군사관학교, 호원대, KAIST 등 군사유관대학 협의체 관계자 간 교류를 강화하는 시간도 가졌다.

김정환기자



## 당진시 탄소중립 나눔 장터 '성료'

### 기증품 판매 수익금 430만 원 당진시복지재단에 기부

당진시는 지난 13일, 어름수변공원에서 나눔 문화 확산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나눔 장터를 펼쳐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당진시는 10여 개 기업체와 단체, 시민들에서 기증받은 물품과 기업체 홍보 제품을 판매해 수익금과 기부금 총 430만 원을 모아, 당진시 복지재단에 기부했으며, 나눔 장터에서 판매하고 남은 물품은 당진 YMCA 녹색가게에 기증했다.

특히 올해 나눔 장터는 텀블러 사용 문화를 확산하고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텀블러 자립시 무료 음료 제공이벤트를 진행했다.

또한 고품질 재활용품 교환행사를 열어 투명페트병 6,000여 개와 우유 팩 400여 kg, 폐건전지 2,600kg 등 총 3,100kg의 재활용품을 종량제봉투, 새 건전지 등으로 교환해 주고,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배출 문화 정착에 기여했다.

당진시 관계자는 "1회 용품 폐기물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생활문화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적극적인 분리수거와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당진=최근수기자

## 예산군 노후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

### 관내 공동주택 단지 40개소 총 5억원 지원,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예산군은 공동 주택 단지 내 공용 시설물의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2024년 공동 주택 관리 지원 보조 사업'으로 관내 대상단지 40개소에 보조금 총 5억 원을 지원한다.

군은 사용 검사(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한 관내 공동 주택 185개 단지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으며, 총 71개 단지로부터 신청을 접수했다.

군은 신청 단지에 대해 공동 주택 지원심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0개소 단지에 대해 ▲내외부 균열보수 및 도장 공사 ▲육상 방수 공사 ▲승강기 교체·보수 공사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공사 등 노후화된 공동 주택의 시설 개선 사업비로 총 5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군 관계자는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71개 단지에 56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며 "앞으로 노후 공동주택 단지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더 많은 단지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예산=박재화기자



## 한전대전세종충남본부-폴리텍IV대학 실무형인재양성 MOU 체결

한전대전세종충남본부(본부장 김준오)는 지난 16일 폴리텍IV대학 대전캠퍼스에서 산·학 협력을 통한 교육장비 공동활용으로 실무중심 전문인력 양성을 도모하고자 양측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서 한전대전세종충남본부와 폴리텍IV대학은 실무형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양 기관이 보유한 시설 및 장비의 공동 활용 등을 통한 역량향상 교육에 대해 협의했다.

특히, 순간 정전 시 고객 수전 설비(UVR(Under Voltage Relay)의 오동작으로 인한 장시간 정전을 예방하고자 폴리텍IV대학의 교육용 수전설비 조작, 체험 및 장비활용에 대해 논의했으며, 전력분야 전문가 양성 커리큘럼 개발 및 한전 전력설비 시설물 견학 등에 대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폴리텍IV대학은 협약을 통해 한전 직원들의 실무 교육기회 확대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더 나아가 지역의 전력산업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김준오 본부장은 "현장 실무중심 교육의 장을 마련했다는 것이 매우 고무적"이라며, "이러한 노력이 지역인재 양성 확대 및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통한 국민 편의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한전대전세종충남본부와 폴리텍IV대학은 현장중심 실무교육 협업을 확대해 지역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송병배기자

## 청양군 브랜드쌀 '향진주' 계약재배농가 특별교육



청양군농업 기술센터(소장 남윤우)는 지난 17일, 청양군 대표 명품쌀 '향진주' 계약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충청남도농업 기술원에서 육종한 벼 품종인 '향진주'는 중간항집비로 구수한

향과 맛이 일품이며, '22년부터 청양군 벼농사연구회를 중심으로 재배를 시작하여 해마다 재배면적이 늘고 있다.

그동안 관내에는 소비자 직거래 위주로 추진됐지만 올해부터는 농협과 계약재배를 통해 대형유통망에도 진입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교육에서는 '향진주' 벼 품종에 대한 이해와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재배기술, 계약재배 농가 유의사항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향진주' 쌀을 군 대표 브랜드로 만들기 위한 첫걸음은 고품질 쌀을 생산하는 일"이라며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실천사항을 꼭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청양=정상범기자

## 조폐공사 모바일 신분증 사업 강화 전사적 역량 결집 나서

### 모바일 주민등록증 서비스 시스템 구축 등 ICT사업 활성화 추진



한 국 조 폐 공 사 ( 사 장 성 창 훈, www.komsco.com)는 지난 17일 오후 본사 카운터에서 ICT 사업전환과 수출 확대를 위한 모바일 신분증 사업역량 강화 워크숍을 실시했다.

조폐공사는 21년 행정안전부로부터 모바일 신분증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았다. 현재, 정부의 모바일 신분증 로드맵에 맞춰 국가신분증 모바일화를 추진 중이며 디지털 플랫폼정부 구축 국정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모바일 신분증은 위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 기반 분산 신원증명 기술(DID)이 적용된 최신 신원인증 서비스로서 기존 플라스틱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효력이 있어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모두 사용 가능하다. 현재 약 135개 편의서비스와 연계되어 국민들의 편리한 신원정보 확인에 사용 중이다.

모바일 신분증 사용이력은 개인 스마트폰에 저장되고 중앙 서버에는 저장되지 않아 사용자 본인만 알 수 있다. 개인

사생활 침해가 어렵다는 장점이 있어 새로운 디지털플랫폼정부 프로젝트로서 전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현재 235만 명이 이용 중이며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누구나 발급 가능하다. 운전면허시험장이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해 IC칩이 내장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후 스마트폰 어플(모바일 신분증 APP)을 설치하고 IC운전면허증을 테그해 발급받을 수 있다.

앞서 조폐공사는 개인정보의 더욱 안전한 보관과 편리한 사용을 위해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ITSM을 도입했다. 체계적인 장애 대응 시스템도 강화해 서비스 운영 역량을 제고할 계획이다.

성창훈 사장은 "국내 모바일 신분증뿐만 아니라 필리핀 등 해외 모바일 신분증 수출 사업에도 힘써 공사 비즈니스 모델의 디지털 전환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조폐공사는 글로벌 ICT기업으로 전환을 위해 전문인력 채용, 워크숍 정례화 및 전문가 초빙 강연 등 다양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축적된 ICT역량을 활용해 해외시장 진출과 국제표준에 부합한 서비스 운영체계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 2024년 1분기 지방세 실무협의회 열려

### 서산시, 비과세·감면, 감액·환급 결정에 대한 적정 여부 심의

충남 서산시가 투명하고 공정한 지방세 운영을 위해 2024년 1분기 지방세 실무협의회를 17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방세 실무협의회는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 감액 및 환급 결정 등이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됐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방세 과오, 횡령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구성됐다.

협의회는 서산시 세정과장을 위원장으로, 세정팀장을 비롯한 담당 팀장 등 5명이 위원으로 구성돼 총 6명으로 운영된다.

이날 시청 세정과 사무실에서 열린 협의회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처리된 ▲5천만 원 이상의 비과세·감면 결정 13건

▲500만 원 이상 감액·환급 결정 24건을 심의했다.

6명의 위원장과 위원들은 심의 인간의 처리 절차, 비과세·감면 신청 서류의 진위, 환급 결정, 사후관리 등에 대한 적정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며 위법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했다.

서산시 한병동 세정과장은 "지방세 업무 처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세 실무협의회를 자율적으로 시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리 및 이익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산=김정환기자



한국타이어, 새봄맞이 환경정화봉사활동 펼쳐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대표이사 이수일, 이하 한국타이어)는 지난 16일 금산공장 인근 명암리 및 기사촌 일대에서, 17일에는 대전공장 인근 목상동 일대에서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새봄맞이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각각 진행했다.

1회 가격으로 최대한 많이 게재해 드리며,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대전투데이만의 노하우...

**광고문의**  
**(042)538-3030**

# 연안 시설물 관계기관과 합동 점검 돌입

## 태안군, 4~5월 안전표지판과 인명구조함 등 연안해역 안전시설물 483개소 점검

태안군이 봄 행락철을 맞아 익수 및 고립 등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과 시설물 점검에 나섰다. 군은 태안해양경찰서와 합동으로 4~5월 두 달간 연안해역 안전시설물 전체에 대한 집중 점검을 추진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연안시설에서의 각종 사고 발생을 줄여 안전한 태안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점검 대상 시설물은 연안해역에 설치된 ▲안전표지판 270개(LED 표지판 35개 포함) ▲인명구조함 148개 ▲유도등 12개 ▲연안안전지킴이 앱 안내판 53개 등 총 483개소다.

군은 안전시설물의 적정 설치 여부와 시설물 작동 및 파손 여부 등을 점검해 즉각적인 수리가 가능한 부분은 바로 조치하고, 내구연한 도래 및 훼손 등에 따른 교체 및 장기 수선이 필요한 부분은 여름철 도래 전까지 조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들 관계자는 "날이 풀리면서 연안해역을 찾는 낚시객과 행락객이 점차 늘고 있어 관계기관과 함께 시설물 합동 점검을 진행 중"이라며 "연안지역의 경우 부식에 의한 시설물 훼손이 빈번한 만큼 신속하고 정밀한 점검을 통해 안전한 연안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입해 재난 예·경보 방송 시스템을 신규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약천후 시에도 상황 관제가 가능한 전천후·회전형 재난 감시카메라(CCTV) 15대를 6월까지 11개소에 신규 설치하고, 기존의 노후 재난감시카메라 39개소 100대도 같은 기간 교체·보수기로 하는 등 연안지역에서의 각종 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름 피서철 전까지 총력전을 펼친다는 각오다.

군 관계자는 "날이 풀리면서 연안해역을 찾는 낚시객과 행락객이 점차 늘고 있어 관계기관과 함께 시설물 합동 점검을 진행 중"이라며 "연안지역의 경우 부식에 의한 시설물 훼손이 빈번한 만큼 신속하고 정밀한 점검을 통해 안전한 연안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태안=김정환기자



## 숲에서 건강 더하기 프로그램 운영

### 당진시, 수목원 활용 맞춤형 건강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당진시보건소는 다양한 산림치유 체험과 걷기 활동으로 암 환자 등 만성질환자의 면역력을 높여 건강을 향상하기 위해, '숲에서 건강 더하기' 프로그램을 오는 5월 2일부터 6월 21일까지 삼선산 수목원에서 진행한다.

참여자는 암 환자 15명, 만성질환자 20명, 비만관리자 20명 등으로 숲 속 특화 프로그램인 ▲내 마음 지도 그리기 ▲숲 명상 ▲숲길 걷기 ▲숲 속 요가 프로그램 등 주 1회 오전에 2시간씩 운영할 예정이다.

모집 기간은 선착순으로 이달 26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건강증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숲 치유 프로그램은 가천대 의대에서 3년간 임상실험과 연구로 검증되었으며, 지난해 참여자의 만족도는 90% 이상으로 매우 높았다.

보건소 관계자는 "수목원의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산림치유 효과를 얻어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당진=최근수기자



### 동정

#### 아산문화공원 개관식



박경귀 아산시장 =19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에서 열리는 '광화문 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친수식', 오후 2시 아산문화공원에서 열리는 아산문화공원 개관식'에 참석.

### 인터뷰



오성환 당진시장 =19일 오후 12시 50분, 서울광화문 채널A 스튜디오에서 채널A '뉴스에이 라이브'에 출연해 인터뷰를 진행.

### 새마을의 날 기념식



가세로 태안군수 =19일 오후 2시 태안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는 '새마을의 날 기념식'에 참석.

### 노인일자리 교육



김돈곤 청양군수 =19일 오전 9시 복지타운에서 열리는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교육에 참석.



### 청양군 올해 지방보조금 컨설팅

청양군(군수 김돈곤)은 지난 17일, 지방보조금의 건전하고 책임 있는 운용 관리를 지방재정의 누수근절을 위해 2024년 지방보조금 컨설팅을 실시했다.

이날 컨설팅은 각 부서 지방보조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4년 지방보조금의 관리강화 계획 ▲지방보조금법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등 주요개정 내용 ▲보조사업자 선정·교부 ▲지방보조금 집행 및 정산 ▲감사사례 등 실무 중심 내용으로 충남도 보조금관리팀장(김기돈)의 강의로 진행됐다.

충남도 보조금관리팀장(김기돈)은 강의 후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해 담당공무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보조사업담당자들이 중요성을 인식하고 올바른 집행 및 정산 방법 숙지를 통한 지방보조사업의 투명성과 집행의 효율이 향상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양=정상범기자

1회 가격으로 최대한 많이 가져와 드리며,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대전투데이만의 노하우...

광고문의 (042)538-3030

## 송산면 회화나무 문화공원 준공식 열려

### 당진시 최초, 지난 1982년 천연기념물 317호 지정

당진시 송산면은 지난 16일, 회화나무 문화공원 및 주민복합문화공간 준공식과 기념 문화행사를 개최했다.

송산면 삼월리 회화나무는 조선 중종 때, 좌의정을 지낸 '이행'이 자손들의 번영을 기원하며 심은 나무로, 수령이 500년도 넘었으며, 지난 1982년에 천연기념물 317호로 지정되며, 당진시 최초 국가 지정 천연기념물이 되었다.

그동안 회화나무가 사유지에 있

는 탓에 주민들이 찾아가기도 어렵고 관리도 힘들었지만, 송산면민들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회화나무 인근을 공원으로 조성하고 주민복합문화공간도 조성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행사에는 내빈과 출향인사와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산면민의 날 선포식을 진행했다. 또한 매년 4월 10일 회화나무 문화공원에서 송산면민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하기로 정했다.

이어서 1부 행사에서는 이근배



시인과 함께 시와 문학이 있는 문화행사를 진행하고 2부에서 모든 기관, 단체, 출향인이 함께하는 화합의 한마당 행사로 진행했으며, 당진=최근수기자

## 아산시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5년 연속 수상



아산시가 17일,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에서 투자유치도시 부문에 5년 연속 선정되며, '기

업이 먼저 찾는 도시'의 명성을 재확인했다.

올해로 19회째를 맞이하는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은, 대한

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선정위원회가 주관하고 동아닷컴·한경닷컴·iMBC가 주최하며, 기업체·공공기관·지자체 등에 대한 소비자 자조사를 실시해 부문별 대표브랜드를 시상하고 있다.

시는 '투자유치도시' 부문에서 7개 시·군과 경합한 끝에 최종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시는 기업유치에 매진하며 ▲2020년 21개 기업 6,000억 원 ▲2021년 40개 기업 1조 2,491억 원 ▲2022년 36개 기업 2조 2,901억 원 ▲2023년 29개 기업 5조 5,127억 원 등 유치 실적도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특히 기업의 투자 상담 요청에만 대응하는 수동적인 태세를 넘어,

전국 각지의 기업체를 직접 방문해 부지선정부터 공장설립 관련 인허가 지원 등 적극적인 맞춤형 상담을 하고 있다. 또 인주면 외국인투자지역(이하 외투자지역)을 확보한 이후 17년 만인 2021년, 당정일반산업단지 내 8만 5,338㎡의 부지를 외투자지역으로 지정받아 세계 우수 기업 유치를 탄력을 받고 있다. 현재는 음봉일반산업단지를 신규 외투자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시는 기업 유치 이후에도 '기업 애로지원단'을 구성해 경영안정자금, 자동차부품기업 특례보증, 수출기업의 무역보험, 무역사절단 지원 등 각종 애로사항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아산=리량주기자

## 청양군 봄철 조림사업 본격 추진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탄소 흡수원 확충과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해 벌채지 등을 대상으로 4월 말까지 7억원의 예산을 투입, 122ha 규모의 춘기 조림사업을 추진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양질의 목재생산과 건전한 생태조성을 위한 경제림 조성 107ha ▲주요 생활권 주변 경관조성 및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큰나무조림 10ha ▲산불에 강한 내화수림대 5ha를 조성할 계획이며, 소나무, 낙엽송, 백합나무, 편백나무, 상수리나무, 특용수(꽃나무, 헛개나무) 등 총 7종을 식재할 계획이다.

또한, 본 사업을 통해 조림 1~3년차 동안 풀베기 및 덩굴 제거 등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이후, 조림 5~10년차에 해당하는 필지는 산주 신청하에 어린나무가꾸기(가지치기 및 솎아주기) 작업을 실시하며, 조림 15년 이상인 곳은 산주 동의하에 큰나무가꾸기(간벌=솎아베기) 등 생육기간에 맞는 숲가꾸기 사업을 시행해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청양=정상범기자

## 태안군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시행

### 채납자대상 '카카오 알림톡' 서비스 이달부터 연중 시행

태안군이 지방세 채납액의 징수율을 높이고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해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행한다.

군은 채납자에게 채납액과 기한 등 납부 정보를 종이고지서 대신 모바일로 제공하는 '카카오 알림톡' 서비스를 이달부터 연중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카카오 알림톡은 납세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에 채납정보를 발송하는 서비스로, 종이고지서 대비 쉽고 편리하게 확인·납부할 수 있다.

또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후 본인만 열람할 수 있어 개인정보 유출 위험도 방지할 수 있으며, 지면에 제약이 있는 고지서와 달리 다양한 정보 및 서비스를 납세자에게 안내할 수 있다.

아울러, 전자송달 방식으로 이뤄짐에 따라 주소지와 실거주지 불일치 등으로 인한 미수령과 분실 등 우편 송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우편물 제작 및 발송 비용도 절감되는 등 장점이 크다는 평가다.

군은 1~3월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시범 실시 기간을 거쳐 4월부터 본격 시행에 나섰으며, 군민들의 반응이 좋을 경우 확대 시행도 검토할 계획이다.

태안=김정환기자

## 아산시 공직자 정부세종청사서 '이순신축제' 홍보전 펼쳐

### 박 시장 시그니처한복 착용, 문체부 로비서 캠페인 동참

아산시 공직들과 박경귀 아산시장 18일, 정부세종청사를 찾아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아트밸리 아산 제63회 성웅이순신축제(이하 이순신축제)' 홍보캠페인을 펼쳤다.

정부세종청사에서의 홍보캠페인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박경귀 시장과 공직자 80여 명이 정부세종청사에 입주한 10개 부처 출근길에서 공직자들에게 축제 개최를 알리며 방문을 독려했다.

아산시는 '성웅 이순신'에만 집중하던 다양한 명품 문화 콘텐츠를 무기로, 이순신축제를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세종시의 경우 차량으로 40분이면 아산시에 닿을 수 있어 적극적인 홍보가 실제 축제 방문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

게다가 정부세종청사가 자리 잡고 있고 중앙부처 공무원 상당수가 세종시인으로 거주하고 있어, 아산시 입장에서는 축제방문객 확보와 중앙부처에 축제를 제대로 각인시킬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노릴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번 정부세종청사 출근길 홍보캠페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이순신축제의 대외 홍보 활동과 손님맞이에 돌입한다.

이날 아산시 공직자들은 이른 아침부터 홍보 어깨띠를 착용하고 전

단을 배포하면서 ▲국내 최대 규모 군악·의장 퍼레이드 ▲뮤지컬 '필사즉생' ▲'아메리카 갓 탤런트' 결선 진출팀인 세계대권도연맹 시범단 공연 ▲포레스텔라 '노랑' 공연 등 이순신축제의 독창적인 문화예술 공연을 소개했다.

특히 박경귀 시장은 아산시의 '시그니처한복'을 입고 문화체육관광부 로비 홍보캠페인에 참여해, 이번 축제가 '이순신'이라는 인물에게 초점을 맞춘 역사적·교육적 축제임을 강조했다.

박 시장은 "우리의 노력과 열정이 출근길 세종시민과 공직자들에게 충분히 전달돼, 모든 부처에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63회 이순신축제는 오는

24~28일까지 5일간 이순신종합운동장, 현충사, 온양온천역, 곡교천 등 아산시 전역에서 개최된다.

주요 프로그램은 ▲아트밸리 아산 제2회 군악의장 퍼레이드 ▲이순신장군 출정행렬 ▲충무공 이순신장군대 전국 노젓기대회 ▲백의의종군길 걷기마라톤 대회 ▲세계태권도연맹 시범단의 '필사즉생 필사즉생' 공연 ▲뮤지컬 '필사즉생' ▲원필드인 및 진조크루 팀의 '학익진 스트리트댄스' ▲민우회와 함께하는 428함정단 공연 ▲포레스텔라 '노랑' 공연 ▲공군 블랙이글스 에어쇼 등이다.

이 밖에 ▲이순신을 체험하는 활쏘기 ▲전통 놀이 ▲전통 의복 체험 ▲말타기 체험 ▲글과 그림을 통해 이순신을 느낄 수 있는 전국 난중일기 사생대회 및 백일장 ▲난중일기 끝판왕 등도 운영된다.

아산=리량주기자

우리/동네

# 장항국가산단 TF팀 구성·실무회의 열려

## 서천군, 장항국가산단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관계 기관과 주요 현안 논의

서천군이 지난 17일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이하 장항산단)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기관별 원활한 행정지원과 공조를 위해 관계 부서, 유관기관 등 장항국가산단 TF팀을 조직하고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장항국가산단 TF팀’은 투자기업의 원활한 투자진행과 조기정착을 목표로 관계 기관인 ▲서천군청 투자활력과 및 환경보호과 ▲LH단지사업팀 및 관매부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북지사로 구성했다.

이날 이들은 장항국가산단 투자기업 현황, 장항국가산단 정주여건



개선, 투자기업 입주 시 인허가 협의, 교통체계 개선 등의 현안 사항을 중점적으로 의논했다.

또한, 관계 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해 기업 투자유치 시 애로사항을 제때 파악해 신속하고 공백없는 지원 및 고충해결에 적극 나서기로 약속했다.

김은이 투자활력과장은 “투자기업이 장항국가산단에 안정적이고 빠르게 정착·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TF팀도 기업과 상생하는 서천을 만들기 위해 사전에 현안을 파악해 해결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등정

영양플러스사업 설명회



김기웅 서천군수= 19일 오전 10시 서천군치매안심센터에서 열리는 2024년 영양플러스사업 설명회에 참석.

### 계룡시 차기 시금고 ‘NH농협은행’ 선정 25년부터 28년까지 4년간 금고 역할 수행

계룡시(시장 이용우)는 내년부터 4년간 시금고 업무를 수행할 금융기관으로 NH농협은행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금고 약정기간이 오는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차기 금고지정을 위해 지난 3월 공개 경쟁 신청공고를 게재했으며, NH농협은행이 단독으로 제안서를 제출함에 따라 재공고 절차를 거쳐 관련 규정에 따라 금고를 지정했다.

금고 선정은 지난 17일 금융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계룡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에서 NH농협은행이 제출한 제안서를 중심으로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관리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금고 업무 관리 능력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 금고 간 협력사업 등에 대해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이루어졌다.

금고로 선정된 NH농협은행은 시의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및 기금 등 2024년 본예산 기준 347억원을 운영하게 되며, 세입금 수납 및 세출금 지급, 운용자금의 예치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시는 이번달 내에 NH농협은행을 시금고로 지정 공고하고, 금고업무 취급 약정을 체결할 계획이다.

약정 이후 NH농협은행은 내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계룡시 자금을 관리하는 금고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서천여성새로일하기센터

#### 여성 고용 기업 환경개선 돕는다

서천여성새로일하기센터(센터장 김재현)가 지난 17일 ‘기업환경개선사업’을 선정하기 위해 관내 기업 2개소를 방문해 심사를 실시했다.

이번 사업은 여성들의 고용안정과 취업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근무 환경 및 휴게시설을 편리하게 개선하는 사후 관리 사업의 하나로, 센터는 올해 2개소 가운데 상반기 1개소를 선정해 500만 원 이내로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서천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직업교육훈련부터 취업 상담·연계, 사후 관리 등 여성 취업을 위한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센터 (041-953-8431)로 문의하면 된다.

### 연무읍이장단협의회

#### 지역인재에 따뜻한 마음 전해

논산시(시장 백성현)는 연무읍이장단협의회 회장 박종상(가)가 지난 17일 연무 농협 하나로마트 2층 회의실에서 연무읍 소재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각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연무중앙초등학교 저서면 학생을 비롯해 5명의 초·중등생에게 각각 20만원, 연무고 노승현 학생 등 4명의 고등학생에게는 각각 25만원을 전달하는 등 모두 9명에게 총 200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했다.

한편, 연무읍 이장단협의회는 2014년 이후 매년 장학사업을 추진 중이며,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더 많이 발굴·배출될 수 있도록 장학사업 뿐만 아니라 지역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구상하겠다고 밝혔다.

# 이용우 시장 다름 아닌 닳음으로 하나되는 계룡 조성 나서

## 장애인보호작업장 찾아 격려·애로사항 청취·작업활동 참여



이용우 계룡시장이 관내 희망장애인보호작업장을 찾아 관계자와 근로자를 격려했다.

시에 따르면 이 시장의 현장방문은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사업장 근로자를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장은 작업장 현장을 둘러보고 프린트 카트리지 제작 작업에 참여해 현장 근로자가 겪는 어려움을 직접 체험했다.

이용우 시장은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찾아 현장을 둘러보고 직접 작업활동에 참여하니 장애인을 위한 보다 섬세한 배려와 지원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느꼈다”며 “장애인이 보다 개선된 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계룡시는 5월 3일 10시 30분 계룡시민체육관에서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 자원봉사자 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 날 기념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계룡=김성구기자

# 건양대 1천억 원 지원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 논산시 최종 선정 시 5년간 국고 천억 지원



건양대가 논산시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글로컬대학으로 예비지정 됐다.

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교육부의 최대 규모 대학재정지원사업이다. 이번 2024년 예비지정에는 20개 대학이 선정됐는데, 무려 109개 대학이 지원했다. 충남에서는 2곳만 선정된 치열한 경쟁 속에 건양대가 예비지정에 선정된 것은 논산시의 적극적인 협력 덕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논산시는 민선8기 들어 백성현 시장의 철학인 4+1 행정, 즉, ‘행정·기업·교육·시민과 더불어 군인(민체 인구)이 유기적으로 한 바퀴가 되어 시너지를 창출한다.’는 기조 아래 업무 율타리를 뛰어넘은 초유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시는 이런 배경에서 이번 글로컬 대학 예비 선정도 적극 지원했다.

백성현 논산시장은 예비 선정을 두고 “지역대학과 지역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계기”라며 “건양대가 K-국방산업을 이끄는 글로컬 선도대학으로 최종 지정까지 될 수 있도록 충남도와 협심하여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번 예비 선정 과정에서 김영관 부시장이 건양대 혁신보고서 기획부터 컨설팅, 심사까지 직접 참여하는 등 시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했다.

건양대가 글로컬대학에 최종 지정되면 향후 국방관련 우수인력이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K-방산’ 대표도시를 꿈꾸고 있는 논산시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백 시장은 “지역과 대학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시너지를 내면 국방산업도시 구축에 촉매제 역할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발전과 대학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서천군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 운영



# 논산시 시민을 지키는 안전벨트 ‘시민안전보험’ 운영

## 논산시민이면 자동가입 되는 보험·최고 2,000만원까지 보장

논산시(시장 백성현)는 논산시민이면 자동으로 가입되는 동시에 보험료를 시에서 전액 부담하는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논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을 대상으로 한 해당 보험은 보장내용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 일반보험 청구와 동일하게 보험금 청구

서, 사고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보험료가 지급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보장내용은 폭발·#8231:화재·#8231:붕괴사고로 인한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역사사고 사망 등 13가지 사항이며, 보장금액은 최대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뤄진다.

한편, 시는 시민안전보험 외에 ‘자전거보험’ 또한 운영하고 있다. 가입은 시민안전보험과 동일하게 논산시에 주소를 두면 자동 무료로 가입되며,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등 7가지 사항에 대해 보장된다.

서천군이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전세 피해 입차인 및 전세 피해가 우려되는 입차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를 운영한다.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합동으로 운영하는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는 법률, 금융·주거, 심리 상담(심리 상담은 22일·24일만 제공)을 제공할 계획이다.

상담소는 정오부터 오후 8시까지 서천군청 2층 문화강좌실2에서 운영되며, 입차인은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하고 상담소로 방문하면 된다.

서천=김태선기자



# 2024 글로벌 도시브랜드 대상 수상

## 부여군, 국가대표 도시문화재 활용 부문 2년 연속 수상

부여군은 지난 1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4 글로벌 도시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시사저널에서 주최하는 글로벌 도시브랜드 대상은 글로벌 시대 지속 가능한 브랜드로 국가 관광산업에 이바지한 도시브랜드를 선정하여 그 가치를 공유하고자 기획되었으며, 글로벌 성장 가능성, 도시브랜드 미래가치 등 분석과 평가를 거쳐 부문별 수상자를 가린다.

시상은 총 9개 부문으로 부여군은 ▲역사문화도시 기초 인프라 구축 ▲문화유산 활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유산 가치 제고 ▲세계유산의 가치 확산 및 도시브랜드 제고 ▲문화유산에서의 지역경제 성장 개최 등을 인정받아 ‘국가대표 도시문화재 활용’ 부문의 수상을 이뤄냈다.

군은 지난 13, 14일 성황리에 개최한 부여 문화유산야행을 비롯하여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세계유산축전 등 다양한 문화유산 활용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뛰어난 문화유산 활용 능력을 인정받아 작년에는 문화재청 지정 지역문화유산 활용 우수사업으로도 선정된 바 있다.



# 농업대학(도시농업과정) 입학식

## 계룡시, 총24회 100시간 교육 통해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

계룡시(시장 이용우)는 지난 17일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입학식 42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3기 계룡농업대학 입학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계룡농업대학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지역 도시농업 발전에 기여할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운영된다.

이날 입학식에는 누구나 손쉽게 농업에 대해 배움으로써 농업 저변을 확대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계룡농업대학은 지난 2월 교육생을 모집해 최종 43명의 입학생을 선발했으며 ▲도시농업 ▲기초농업 ▲친환경농업 ▲치유농업 ▲텃밭 가꾸기 등의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학사과정은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 동안 운영되며, 농업기술센터 교육장과 텃밭실습 포장에서 24회 100시간의 교육을 통해 도시농업 전문가로 양성될 예정이다.

한편 계룡농업대학은 지난 2012년 도시농업과정이 개설되어 올해로 13년째를 맞이하고 있고 총 389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는 등 계룡시 도시농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 충남 투어패스가매점 모집 중

## 부여군, 체류형 관광객 증가·모바일패스 출시 예정



부여군이 지역의 다양한 관광지, 맛집, 숙박 등을 연계한 합인 패스권인 ‘2024 충남 투어패스’의 관내 가맹점을 모집한다.

충남 투어패스는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를 맞아 주어진 시간(24시간/48시간) 동안 도내 유료 관광지를 비롯해 음식점, 카페 등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모바일 자유이용권이다.

가맹점 모집은 충남 투어패스가매점 모집 QR코드를 통해 진행되며, 부여군 내 위치한 업체라면 관광지, 카페, 체류, 쇼핑 등 어느 곳이든 가능하다.

부여군 관계자는 “충남 투어패스를 통해 관광객에게 다양한 관광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소상공인들의 홍보, 매출 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유망한 가맹점을 지속 발굴하여 투어패스 상품권을 골꿀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정

공주시장기게이트볼대회



최원철 공주시장은 19일 오전 9시 30분 금성게이트볼장에서 열리는 제30회 공주시장기게이트볼대회 참석.

산업안전 보건교육



구기선 보령부시장은 19일 오전 10시 문예회관 소공연장에서 열리는 공공일자리 산업안전 보건교육에 참석.

제14회 새마을의 날기념식



이완섭 서산시장은 19일 오전 10시 30분 서산문화원에서 열리는 제14회 새마을의 날기념식 참석, 오후 4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시장발전 유공시민 시상식 참석.

충남 장애인 날 기념식



박범인 금산군수는 19일 오전 10시 30분 금산종합체육관에서 열리는 제44회 충남 장애인 날 기념식 및 어울림대회 참석.

105주년 주립산 3·1 만세운동 기념식



충남 보령시는 지난 17일 주산면행정복지센터 광장에서 구기선 부시장을 비롯한 기관·단체장, 유족, 지역주민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05주년 주립산 3.1만세운동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만세운동 기념행사는 보령문화원(원장 신재완)이 주관하여 독립만세 운동의 뜻을 되새기고, 민족지존의 가치를 높인 지역출신 애국지사의 회생을 기리기 위해 개최됐다. 행사는 주산면 풍물놀이단 공연을 시작으로 추모헌화, 3.1운동 경과보고, 독립선언서 낭독, 기념공연,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됐다.

구기선 부시장은 기념사에서 "일제강점기 어두운 시대 상황 속에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큰 뜻을 실천하고 독립운동에 헌신한 분들의 삶을 오래도록 기억하겠다"며 "대한민국을 굳건히 지켜내시고, 위대한 역사의 수레바퀴를 전진시켰던 모든 순국선열, 애국지사께 깊은 존경의 마음을 바친다"고 말했다.

한편 주립산 만세운동은 1919년 4월 17일 주립산에서 전개된 독립만세운동으로 배재학당을 다니던 이철원(李哲源)선생이 서울의 3.1만세운동을 고향에 알리기 위해 동지 18명과 주립산 국수봉에 올라 깃발을 밝히며 시작했다.

김태선 기자

서산시, 어르신 일자리 사회활동 지원

예산 약 1천200억 원 편성, 기초연금·노인맞춤돌봄 등 다양한 사업 추진



충남 서산시가 초고령화 사회(65세 이상 인구 20% 이상)에 들어선 가운데 어르신의 든든한 삶의 동반자로서 행복한 노후를 지지하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인다.

시는 어르신들의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위해 ▲양질의 일자리 제공 ▲노인여가복지 환경 개선을 위한 경로당 신축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센터 운영 ▲복합문화공간으로서 경로당 재탄생 등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난해 대비 42억 원 증가한 160여억 원을 투입해 다양한 일자리 등 사회활동을 지원한다.

지난해 모집인원 대비 556명 증가한 3천787명의 어르신이 현재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 등 다양한 유형의 노인 일자리를 수행 중이며 사회구성원으로서 자신의 경륜을 사회에 재투자하는 보람을 느끼고 있다.

시는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는 어르신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을 수시로 진행하는 등 안전한 일자리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휴관·휴서기에는 외부 활동을 자제하는 등 실내 중심으로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둘째로 노인여가복지 환경 개선을 위해 27억 1천300만 원을 투입해 6개소의 경로당을 신축할 계획이다.

시는 4월 2일 경로당 신축사업에 선정된 마을 관계자, 읍면동 담당자를 대상으로 어르신들의 자립과 건강, 안전을 고려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교육을 진행했다.

신축되는 경로당은 단순한 마을회관의 기능이 아닌 주민의 화합공간과 어르신의 여가생활 공간으로 기능하는 복합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재탄생할 예정이다.

셋째로 65세 이상 독거 어르신과 상시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등 2천 751명의 대상자에게 사고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넷째로 시는 올해 관내 경로당 2개소를 대상으로 마을주민의 다양

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연중 운영한다.

서산시 7개 부서를 통해 성인문해교실, 체력충전, 구강관리, 뷰티힐링 등 11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시는 이를 위해 3월 22일 대상 경로당 2곳에서 현판식을 개최했다.

시는 경로당이 복합문화공간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유지하는 가운데 올해 사업 완료 후 점진적으로 대상 경로당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어르신들의 든든한 삶의 동반자로서 행복한 노후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만족하는 실효성 있는 시책으로 어르신의 손을 맞잡고 지지하는 지팡이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약 1천억 원으로 편성된 기초연금을 적기에 지급하고, 경로당 운영 활성화 사업,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효행 2030 어르신봉양프로젝트 등 다양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서산=김정환기자

“지구를 생각하는 시간, 22일 저녁 8시부터 10분간 불을 꺼주세요”

공주시, 지구의 날 맞아 기후변화주간 운영

공주시(시장 최원철)가 제54주년 지구의 날을 맞아 4월 22일부터 28일까지 탄소중립 실천과 기후행동 확산을 위해 기후변화주간을 운영한다.

기후변화주간 대표행사인 '전국 소등행사'는 4월 22일(월) 오후 8시부터 10분간 진행되며, 공주시민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다.

탄소중립 실천 5대 분야로는 ▲

에너지 절약 ▲친환경 물품 구매 ▲친환경이동수단 이용 ▲올바른 분리수거 ▲술아끼기가 있다.

이외엔 환경보호과장은 "22일 시행되는 '전국소등행사'에 많은 시민 분이 참여해 주길 당부드린다"며 "기후변화주간을 계기로 탄소중립의 마음가짐을 다잡고 실천 문화가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주=정삼범기자



우리/동네

김동일 시장,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 제공

특별한 아침 대청결 활동



김동일 시장은 지난 18일 태국 춘부리주 방센 해변에서 군블름 샌스 시장을 비롯해 시청 및 기관 관계자, 시민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한 아침 대청결 활동을 펼쳤다.

이번 행사는 매년 4월 17일에 열리는 완 라이 방센 페스티벌(송크란 축제)의 일환으로, 두 도시의 시장이 직접 참여하여 지역사회의 청결을 강조하고 시민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유지할 것을 독려했다.

김동일 시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2015년부터 보령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소·친절·청결·칭찬 운동에 대해 설명하며, 이 운동이 어떻게 지역사회의 긍정적인 변화와 시민의식 성장을 이끌어내고 있는지 공유했다.

나눔터나 콘블름 시장 역시 이 운동에 큰 관심을 보이며, 샌스시에서도 유사한 캠페인을 도입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청결 운동은 방센 해변을 방문하는 관광객과 지역 주민 모두에게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방센 해변은 대천해수욕장의 해변과 유사한 환경을 가지고 있어 등걸감을 느끼며 우호적으로 행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

김동일 시장은 "보령에서 시작된 미소·친절·청결·칭찬 운동을 태국 샌스시민과 함께할 수 있어 감동적인 순간이었다"라며 "두 도시가 이번 행사를 기반으로 한걸음 더 가까워져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김태선 기자

봄철 진드기 감염병 주의 당부

공주시, 공산성 등 해충기피제 분사기 본격 가동

공주시(시장 최원철)가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봄철을 맞아 시민들과 공주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진드기에 의한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기후 온난화로 인해 매년 진드기 모기와 같은 감염병 매개체의 활동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어 쯤쯤가무시증,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등의 질환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시민들이 많이 찾는 금강산관광원, 호태산 등 산책로와 공산성, 감사, 마곡사 등 주요 관광지에 설치된 해충기피제 분사기 15개소를 대상으로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했다. 또한, 기피제를 보충하는 등 사전 점검을 마친 뒤 지난 3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정상 가동을 시작해 11월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해충기피제 분사기 1회 사용 시 쯤쯤가무시증,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등 진드기 매개 감염병과 일본뇌염 등 모기 매개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으며 예방효과는 3시간 동안 지속된다.

한편, 보건소 중점 시책으로 2021년 해충기피제 분사기 확대 설치한 이후 국내 누적 치명률이 19%에 육박하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의 환자가 공주시에서는 최근 2년 동안 발생하지 않았다.

박경운 감염병관리과장은 "진드기 매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야외활동 시 해충기피제 사용을 습관화하고 야외활동 후 2주 이내 발열,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있거나 물린 흔적을 발견하면 의료기관을 방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주=정삼범기자

공주시, 주미산 산림체험·교육프로그램 운영

시민·관광객 누구나 참여

공주시(시장 최원철)가 주미산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을 위해 산림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를 위해 시는 주미산 치유의 숲에 산림치유지도사, 주미산 자연휴양림에 숲 해설가를 배치해 원활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했다.

또한, 이곳에는 유아숲지도사가 배치돼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학교 어린이를 대상으로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마음껏 뛰놀고 오감으로 자연과 교감하는 자연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유아숲체험원에서 진행한다.

주미산을 찾았오는 시민과 관광객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희망하는 프로그램 시간에 맞춰 지정된 장소에 도착하면 된다.

공주=정삼범기자

올해의 책 '밝은 밤' 최은영 작가 북콘서트 개최

금산군, 온라인오프라인 참여자 모집 추진

금산군은 5월 18일 금산읍 여성창의문화센터 8층에서 제2회 책 읽는 금산 비단책보 올해의 책으로 선정된 '밝은 밤'의 최은영 작가 북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기분만 좋으면 된다'의 이장민 작가가 맡아 리버드(RiBird) 밴드의 노래를 듣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최은영 작가와의 대화를 즐길 수 있도록 진행된다.

최은영 작가의 첫 장편소설인 '밝은 밤'은 100년 동안 사람들이 서로를 사랑한 이야기로 할머니와 손녀, 친구, 모르는 사람 사이에서도 생길 수 있는 인간으로 살면서 서로 나누고 경험할 수 있는 사랑에 대해 긴 시간 동안 그려낸 소설이다.

북콘서트 참여 신청은 오는 19일부터 진행되며 온라인은 금산군

립도서관 홈페이지 공지에 올린 홍보물의 QR코드와 폼 링크를 이용하면 되고 오프라인은 인삼고을, 기적, 진산, 추부도서관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책 읽는 금산 비단책보 올해의 책 '밝은 밤' 최은영 작가 북콘서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금산다락원 도서관팀 ☎041-750-3522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북콘서트를 통해 군민들께서 작가와 더 깊이

공감하며 함께 책 읽는 즐거움을 느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금산군은 주민이 직접 추천하고 3차례 선정 과정을 통해 2024 책 읽는 금산 비단책보 올해의 책에 일반도서 '밝은 밤'(최은영), 청소년 도서 '이폰트(손원평), 아동도서 '친구의 전설'(이지은)을 선정했으며 인삼고을, 기적, 진산, 추부도서관에 해당 도서를 독서 릴레이용으로 비치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보령시, 2024년 찾아가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첫 운영

현장 방문 상담으로 시민의 고충·생활 민원 해결 노력

보령시는 지난 17일 웅천읍행정복지센터에서 시민들을 직접 만나 다양한 고충을 듣고 해결하기 위한 2024년 찾아가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운영을 시작한 보령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확대해

올해는 시민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충민원 해결을 위해 직접 현장 방문에 나선다.

찾아가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17일 웅천읍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16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고충·생활, 행정, 세무 등 다양한 분

아의 상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상담은 사전 및 현장 신청이 모두 가능하며, 신청 후 편의에 맞게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의 상담 운영 일정에 맞춰 방문하면 된다. (일정 및 신청 문의: 보령시청 기획감사실 ☎930-3137)

김동일 시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민원 해결에 있어 시와 시

민의 등도 역할을 하는 중요한 소통창구"라며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통해 더욱더 시민의 권익 보호와 여러 민원 해결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보령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운영 시작 후 지금까지 총 35건의 고충민원을 처리해 시민불편 해소에 앞장서고 있다.

서산시, 친환경 방역체계 구축 미꾸라지 방류

충남 서산시가 17일 친환경 방역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앙호수공원을 위생해충의 천적인 미꾸라지를 방류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서산시방역기동반, 학생과 어린이 등 시민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미꾸라지 3만 마리를 방류했다.

미꾸라지는 모기와 깔따구, 장구벌레 등으로 대표되는 위생해충의 천적으로, 한 마리가 하루에 위생해충 유충 1천 마리 이상을 잡아먹

어 여러 시군에서 생물학적 방제를 위해 이용된다.

또한 하천 바닥을 파고 들어가는 습성을 갖고 있어 하천에 산소를 공급해 수질을 개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꾸라지 방류 후 방역기동반은 해충 구제를 위해 중앙호수공원과 석림천에 물을 이용한 친환경 연부소독 및 유충구제를 진행했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이번 미꾸라지 방류를 통해 많은 시민이 이

용하는 중앙호수공원 일대에 친환경 방역체계가 갖추어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시책을 추진해 시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로 도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미꾸라지 방류와 함께 해충퇴치기 가동, 물을 이용한 연부소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친환경 방역체계를 구축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산=김정환기자



대전투데이 Daejeon Today 광고문의 (042)538-3030

# 한국수자원공사 등 30개 투자기관, 지역균형과 물산업 성장 위해 뭉쳐 정기총회 및 유망기업 투자유치 위한 기업설명회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 윤석대)는 18일 서울시 중구 롯데호텔에서 공사를 포함한 30개 물산업 투자기관이 참여하는 '물산업 투자기관 협의회' 정기총회 및 유망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기업설명회(IR)를 개최했다.

물산업 투자기관 협의회는 유망기업 투자 확대 및 물산업 혁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벤처투자, 지역혁신벤처펀드 투자기관 등 12개 사로 2022년에 출범해 올해 30개 사로 확대 운영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 등 30개 회원사는 협의회를 통해 물산업 투자 콘퍼런스 개최, 유망기업 정보 공유 등 물산업 투자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더불어, 물산업 전문인력 양성과정 개설 등 전문역량 제고를 통해 물기업에 대한 투자기관의 관심과 접근성을 높이는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총회에서는 협의회 연간 운영계획



등 주요 안건보고와 기후위기 대응 및 글로벌 물산업 전망 브리핑, 인공지능(AI) 등 혁신기술과 융합한 디지털 물관리를 주제로 김성훈 한국수자원공사 AI연구센터장의 '물관리 디지털 전환과 주요 기술 현황' 강연이 이어졌다.

또한, 인공지능(AI)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사결정 플랫폼 등 디지털 물관리를 위한 혁신기술을 보유한 한국수자원공사의 협력

스타트업과 초기창업패키지 및 창업도약패키지 등 스타트업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의 투자 연계 기업설명회도 진행됐다.

안정호 한국수자원공사 그린인프라부장은 "앞으로도 물산업 투자기관 협의회를 통해 혁신 물기업에 대한 투자가 활발해지길 기대한다"라며, "민관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하여 혁신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이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성

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수자원공사는 2018년부터 자체자금을 투입하여 초기투자 및 성장자금이 필요한 물분야 혁신기업의 투자 비중을 역량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2021년부터 5년간 중소벤처기업부, 지자체 및 벤처캐피털 등 민간 투자기관과 함께 지역혁신 벤처펀드 4,668억 원을 조성하고, 지역 유망기업의 성장지원 및 물산업 혁신 생태계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지역혁신 벤처펀드는 2021년 총청권(1,350억원)과 동남권(1,200억 원), 2022년 대구제주광주권(1,278억 원) 및 2023년 전북·강원권(840억 원) 펀드결성을 완료하며, 전국 11개 광역시·도의 지역 전략산업과 물산업 육성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벤처펀드 및 물산업 투자생태계 조성 노력을 통해 혁신 물기업 53개 사에 580억 원 상당의 투자를 완료하였다.

이정복기자



2027 충청세계대회 '체육교사협업체' 첫 회의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18일 '충청권 체육교사협업체' (이하 '협업체')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18일 조직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는 협업체 위촉 및 효과적인 학생 대상 교육콘텐츠 제작을 위한 안건 논의가 진행되었다.

선문대학교 '2024년 파란사다리 사업'

## 6년 연속 주관대학으로 선정



선문대학교(총장 문성제)가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주관하는 '2024년 파란사다리 사업'에 6년 연속 주관대학으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파란사다리 사업은 경제·사회적 취약 계층대학생을 대상으로 글로벌 역량 개발 및 진로 개척 기회 제공을 위해 해외 연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문대는 2019년 파란사다리 사업이 처음 진행된 이후 6년 동안 연속해서 주관대학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선문대는 다년간 축적된 국제적 네트워크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철저한 사업 관리 및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2019년 최우수 운영 대학 선정, 2021년과 2022년 사업 운영 교직원 교육부장관 표창, 2023년 선문대 이수영(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4학년) 학생의 교육부장관 표창 등의 성과를 이뤘다.

이번 사업 선정에 따라 선문대는 4주간의 해외 연수 프로그램인 '파란사다리 1유형'과 올해 신설된 16주간의 해외 현장학습 프로그램인 '파란사다리 2유형'을 함께 운영한다. 1유형은 충청·강원권역 주관대학으로서 선문대 재학생 51명, 충청·강원권 대학 재학생 9명 등 총 60명을 선발한다. 2유형은 선문대 재학생 6명을 선발한다.

아산=리량주기자

목원대, 방위사업청 주관 국방사업관리사

## 자격시험 교육과정 운영대학 선정

목원대학교(총장 이희하)는 방위사업청이 주관하는 국방사업관리사 자격시험 교육과정 민간 운영대학에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국방사업관리사는 군인사법에 근거를 둔 방위사업 분야 유일의 국가자격으로 국방부장관 명의로 수여된다.

국방사업관리사 자격시험은 일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만 응시할 수 있다. 기존에는 관련 교육과정을 서울에 있는 방위사업청 교육원에서 군·방위사업청, 방산 기업 재직자만을 대상으로 운영했다. 하지만 목원대가 민간 운영대학에 선정되면서 대전지역에 있는 대학 학생 또는 방산업계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 재직자 등도 관련 교육을 수료한 뒤 국방사업관리사에서 도전할 수 있게 됐다.

목원대는 오는 6월 17일부터 8월 14일까지 대졸 미취업자 20명을 대상으로 2024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선정된 방위산업 시험인증 및 검·교정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국방사업관리사 자격시험 교육을 병행해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 수요자들은 방위사업청장 명의의 교육수료증을 받아 국방사업관리사 3급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김대선기자

## 공주시 '감사 황매화 축제' 진행

계룡산감사상가지구일원... 오는 4월 19일부터 3일간

국내 최대 황매화 군락지로 알려진 계룡산 감사상가지구 일원에서 오는 4월 19일부터 3일간 '2024 감사 황매화 축제'가 진행된다. 18일 공주시와 계룡산국립공원 감사가지구 변영희에 따르면, 황매화 개화 및 만개 시기를 고려해 4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계룡산 감사상가지구 일원에서 황매화 축제를 개최하기로 했다.

'계룡산의 봄, 황매화로 물들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올해 축제에는 방문하는 관람객들이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황매화꽃 소원집기, 황매화 시화전시, 토크콘서트, 예술공연 등 봄철 신록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관람객을 맞이한다.

시는 상춘객과 등산객 등 많은 인파가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축제 기간 비상연락망을 정비하고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원활한 행사 진행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공주=정상범기자

# 한국서부발전, 국가산단 에너지효율화사업 '시동'

CO2 배출 억제 연 4,044천톤 절감 8,804MWh·문화휴게공간 제공도



한국서부발전(사장 박형덕)은 지역 국가산단단지의 전력 자급자족, 탄소배출 감축,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기반 시설 사업을 본격화한다.

서부발전은 4월 17일(수)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북지역본부에서 '군산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및 운영사업 2차년도 착수보고회'를 진행했다.

서부발전과 군산시, 전라북도, 산업단지

공단 군산지역본부 등 8개 기관 30여명이 참석한 이번 착수보고회는 지난해 체결된 본 사업 협약의 후속 조치다. 회의에서는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소형풍력발전 설비 구축, 재생에너지 관리시스템(FEMS) 구축 등이 논의됐다.

서부발전은 지난해 산업동상자원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산업단지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및 운영사업'의 주관

기관으로 선정됐다.

서부발전은 케이티, 유호스트, 대연씨앤아이, 서울대학교, 신성이엔지, 호원건설과 연합체(컨소시엄)를 구성하고 오는 2023년까지 3년 동안 310억원을 들여 재생에너지 기반 시설 구축과 재생에너지 관리시스템 구축, 탄소중립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업 2년차인 올해 서부발전은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상대로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확대하고 이들의 노후 설비를 고효율 기기로 교체하는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방안이 실행되면 연간 4,044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억제하고 8,804MWh(메가와트어) 수준의 전력 절감 효과를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형덕 서부발전 사장은 "적극적인 에너지 효율화 사업과 재생에너지 발전원 확대로 국가의 에너지 신산업을 이끌겠다"고 했다.

대인=김정환기자

# 롯데백화점 대전점, 간절기 필수 아이템 제안 행사 진행

봄맞이 집안분위기 바꿀 키친/테이블웨어 할인 혜택 및 봄 패션의류 균일가전 행사 등 다양한 혜택

롯데백화점 대전점(점장 정승욱)이 간절기를 맞아 다양한 간절기 필수 아이템을 제안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먼저 코스메틱 매장에서는 간절기 피부 건강을 위한 다양한 아이템이 준비돼 있다.

겔랑은 4월 단독 프로모션 행사를 19일부터 21일까지 1층 본매장에서 진행한다. 간절기 피부건강을 위한 신제품인 '아베이 로얄 클라리파이 리페어 에센스' 출시 기념으로 로션, 오일, 세럼 등을 추가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빠쉬르 골드 스킨 파운데이션 ON'과 '아베이 로얄 유스 워터리 오일'도 각각 추가 증정품과 함께 제안한다. 더불어 구매금액대별로 5% 상당의 롯데모바일상품권을 증정하는 사은행사도 19일부터 21일까지 진행한다.

비오렘도 4월 스페셜 혜택 행사를 19일부터 30일까지 1층 본매장에서 진행한다. 먼저 방문고객 대상으로 30명 한정제로 옴(UV 샘플5ml)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또한 구매 금액에 따라 15만원/18만원/20만원/25만원 이상 구매시 여행용 4종/여행용 5종/파우치/여행용 6종 + 아이쿠아퍼 2종을 각 증정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더불어 바다로션세트, 필에센스세트 등을 구매 시 여행용 샘플을 함께 증정한다.

시슬리도 신제품 출시 기념 행사를 19일부터 21일까지 1층 본매장에서 진행한

다. 지성피부 및 더운 날씨에 사용하기에 좋은 NEW 시슬리아 랩에그탈 앙티아주프레쉬 켈 크림' 구매 시 여행용 5종세트와 파우치를 증정한다. 더불어 헤어리추얼 라인 30만원 이상 구매 및 시슬리 70만원 이상 구매 시 각각 추가 증정품을 함께 제안한다.

침구브랜드들도 간절기 상품을 제안한다. 운원궁에서는 간절기 침구 인기상품전' 행사를 19일부터 25일까지 지하1층 리빙행사장 및 본매장에서 진행한다.

카페트, 차림이불, 베개 등 다양한 상품을 50~70% 할인 판매한다. 또한 예단 상품 구매 시 10%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19일부터 21일까지 구매 금액대별로 10% 상당의 롯데모바일상품권을 증정하는 사은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프리미엄 침구 브랜드인 님스침구에서도 봄맞이 인기 침구 상품 제안행사를 같은 기간 진행한다.

정상상품 20% 할인에 추가 10% 할인 혜택(일부품목 제외)을 더한 이번 행사를 통해 다양한 이불, 패드, 베개커버 등 2024년 정상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날 수 있다.

봄맞이 테이블웨어 및 키친웨어 행사도 준비돼 있다.

아티스타나는 '봄맞이 테이블웨어' 행사를 19일부터 25일까지 지하 1층 이벤트

홀에서 진행한다. 플란트 공기대접 세트를 한정수량으로 70% 특가에 구매 가능하며, 머그, 찬기, 접시 등 봄 입맛을 살리는 다양한 스타일과 색상의 테이블웨어를 최대 60%까지 할인된 가격에 만날 수 있다. 더불어 19일부터 21일까지는 구매금액대별로 10% 상당의 롯데모바일상품권을 증정하는 사은행사를 진행한다.

휘슬러도 인덕션, 키친웨어 웨딩세트, 냄비세트 등 다양한 상품을 최대 40%까지 할인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 키친웨어 편집브랜드인 포하우스도 BAF, 파켈만, 고트만 등 다양한 브랜드의 제품을 최대 60%까지 할인 판매한다.

패션의류 상품군도 간절기 행사를 19일부터 25일까지 지하1층 이벤트홀에서 진행한다. 다루아치최는 다양한 균일가 상품을 5/7/9만원에 제안하며 그 외 원코스 15만원, 재킷 18만원, 바지 13만원 등 다양한 제품을 구매 가능하다.

레노마셔츠도 셔츠상방 4만원 균일가 행사를 진행한다. 더불어 구매금액대별 10% 상당의 롯데모바일상품권을 증정하는 사은행사도 19일부터 21일까지 진행한다.

비너스도 인기 아이템 제안전 행사를 진행하며 브라 3만5천원~6만9천원, 여성 팬티 9천원~2만9천원, 남성 팬티 1만7천원~3만2천원에 만나볼 수 있다.

송병배기자



당진시, 세외수입 담당자

업무 역량 강화 교육 실시

당진시는 지난 17일, 시청 전산교육장에서 각 부서 세외수입 담당자를 대상으로 업무 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지난 2월 13일 새롭게 개편된 차세대 세외수입프로그램의 활용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당진시는 한국지정정보개발원의 전문 강사를 초빙해 부과 및 징수결의, 간역, 과오납, 보조금 반납 등 실제 업무에서 당면하게 되는 문제점과 유의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사례 중심의 실무 강습과 이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특히 체납처분 이전 단계인 독촉장 발송과 송달의 중요성에 대해 재차 강조하고, 체납처분에 따른 프로그램 사용법과 전산 실습 위주의 교육을 실시했다.

당진=최근수기자



산림복지진흥원 '산불

진화기계화시스템' 도입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남태현)은 '산불 특별대책기간, 국민에게 안전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산림복지시설에 '산불진화 기계화시스템'을 도입했다고 18일 밝혔다.

'산불 진화 기계화시스템'은 차량 접근이 어렵고 수막터워 반경을 벗어난 산림 내에 산불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펌프, 호스, 분배기, 간이수조 등을 취수원과 연결해 산불 현장까지 물을 공급해 산불을 효과적으로 진화하는 시스템이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전국 국립산림치유원 등 9개소 산림복지시설에 산불 기계화시스템을 도입하고 인직원 대상 시스템 운용 교육을 실시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산불 진화 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진흥원은 지난 17일 산림청 공중 및 특수진화대원과 함께 산불 진화기계화시스템을 활용한 모의훈련을 실시해 임직원들의 산불 대응 역량을 강화했으며, 앞으로도 산불 발생 현장에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장비를 활용한 교육 및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송병배기자



**충남대 김정경총장 '커피차'로 재학생 응원** 충남대학교 김정경 총장이 중간고사를 맞은 재학생들을 위해 커피를 제공하는 등 취임 이후 재학생들과의 적극적인 소통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충남대 산학협력단은 4월 18일 오후 1시, 중앙도서관 앞광장에서 중간고사를 맞은 학생들에게 커피차를 제공했다.



**배재대·대전동산고 디지털 융·복합 인재양성을 위한 협약 체결** 배재대학교(총장 김욱)와 대전동산고등학교(교장 이선구)가 17일 디지털 융·복합 인재양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 이후 대전동산고 1학년 학생들은 배재대 신기술혁신융합대학사업단(단장 이병업)의 '배재대학교 COSS 사업단과 함께 공유하는 청소년 행복 메타버스스쿨'에 참여해 첨단교육을 받았다.



**순천향대, (주)지엠디블유글로벌과 업무 협약 체결** 순천향대(총장 김승우) 산학협력단(단장 김용하)은 17일 구글 클라우드 엡시트 한국 파트너 기업인 (주)지엠디블유글로벌(대표이사 이영기)과 첨단 소프트웨어 인력양성을 위한 상호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주시신관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한우국밥데이' 운영** 공주시신관동(동장 박원규)은 최근 신관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소금중)와 관내 어르신 120명을 대상으로 '한우국밥데이'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한우가든정육점(한식당)에서 음식을 제공하고 신관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생수, 썩살기 및 꿀떡, 과일(딸기, 바나나)을 후원했다.



**금산군 추부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저소득 취약계층 밀반찬 나눔** 금산군 추부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오오남)는 지난 17일 추부면행정복지센터에서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밀반찬 나눔 봉사에 나섰다.



**대전상의 청양지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교육' 개최** 대전상공회의소(회장 정태희)는 18일 오전 10시 청양군청청양전통시장상인회관에서 지회 회원사 30여명의 대표이사와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대응 교육'을 개최했다.

## 백석대 '장애인과 함께하는 MT'... 코로나 이후 본격 재가동

# “VR 장비로 다양한 운동 체험해요”

백석대학교총장 장중현 사범학부 특수체육교육과는 4월 18일 교내 백석체육관 일원에서 '장애인과 함께하는 MT'를 진행했다. 백석대 특수체육교육과는 음주사고 등으로 이어지는 기존의 MT에서 탈피해 신입생은 물론 재학생과 장애인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행사를 2006년부터 이어오고 있다.

이번 MT에 참여한 장애인들은 30여 명으로, 지역 발달장애센터 등에 소속된 성인들이다. MT의 프로그램은 ▲킨볼 굴리기 ▲농구공 패스 후 골 넣기 ▲낙하산 공 떨어뜨리기 ▲2인 3각 등이며, 특별히 VR·XR 기기를 활용해 장애인들이 평소 체험하기 힘든 다양한 스포츠양궁, 윈



반던지기, 고정형 사이클 등을 경험해보는 시간도 마련했다. 특수체육교육과 1학년 이소현씨(20·여)는 “다른 친구들과는 조금 다른 MT라고 해서 한 편으로는 걱정도 됐는데, 막상 참여하니 즐겁고 기쁘다”며 “장애인 분들께서 저희와 함께 시간을 보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만남에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세상에서 도움이 되는 특수체육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수체육교육과 구교만 전공주인교수는 “비장애인들에게도 중요한 ‘운동’은 사실 이동이 자유롭지 않은 장애인들에게 훨씬

중요하다”며 “장애인들은 새로운 운동을 체험하고, 재학생들은 장애인들과 함께하며 배운 것들을 적용해볼 수 있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행사”라고 설명했다. 천안돌봄주간활동발달장애센터(소속 김영훈 씨(38·남)는 “좋았고 재미있었다. 다 함께 자리를 마련하느라 고생하셨고, 감사드립니다”고 소감을 전했다.

백석대 특수체육교육과는 연 1회 진행되는 ‘장애인과 함께하는 MT’ 외에도 지역 장애인들을 위해 ▲장애아동 체육교실 ▲장애아동 운동발달 클리닉 ▲성인 장애인 프로그램 ▲노성마비 학생 체육교실 등을 정규 운영하고 있다.

천안=이정복기자



한효진, 김명근 유성구장애인

### 복지관장 칭찬 대상자 선정

한국효문화진흥원(원장 김기황, 이하 '한효진')이 현대적 효 실천 시범운동으로 추진 중인 칭찬·감사 릴레이에 김명근<사진> 유성구장애인복지관장이 칭찬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한효진은 칭찬·감사 릴레이를 통해 계절, 국가 기념일 등 시기별 맞춤 칭찬 대상자를 발굴하고 있는 가운데 4월에는 장애인의 날을 맞아 김명근 유성구장애인복지관장이 추천되었다. 김 관장을 추천한 북우회 한성일 회장은 세 살때 얻은 소아마비 장애에 굴하지 않고 언제나 긍정적이고 밝은 기운으로 친절을 베푸시는 김 관장을 칭찬한다고 추천 이유를 밝혔다.

## 미래엔 서해에너지, 고객 초청 세미나로 적극소통 나서

### 산업용 및 대용량 수요처 고객들 대상



미래엔 서해에너지는 지난 17일, 당진시 소재 본사에서 '2024년 고객 초청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산업용 및 대용량 수요처 고객들을 대상으로 최근 천연가스 시장의 동향과 더불어 향후 탄소중립사회에서 가스산

업의 방향성에 대해 공유함으로써, 고객사의 기업 경영 및 에너지 정책 업무 운영에 대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세미나의 첫 번째 세션과 두 번째 세션은 각각 한국가스공사(KOGAS) 경제경영연구소 송형상 박사와 한국도시가스협회 최재학 전문위원이 맡아 '2024년 국내외 천연가스 시장 현황', '가스산업의 탄소중립 적응'을 주제로 강연을 이끌었다. 이어서, 세 번째 세션에서는 미래엔 서해에너지가 산업체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는 자체 에너지 진

단서비스에 대해 소개했으며, 에너지 진단서비스는 고객의 에너지 사용 현황을 파악하고 에너지 손실요인 발굴 및 추가 절감 방안을 도출하는 등 고객에게 최적의 에너지솔루션 제공을 위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다. 미래엔 서해에너지 관계자는 “고객의 니즈와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주고받을 수 있는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갈 예정이다”라며 “앞으로도 고객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최적의 에너지솔루션을 제공하는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당진=최근수기자



## 대전도시공사, 청림나무 식목행사

### 다함께 심고, 키우고, 나눠 청림韓 세상 만들기

대전도시공사새사장 정국영(가 본사 사옥과 오월드에서) 임직원과 노동조합 위원장이 참석하여 청림경영 실천의지를 담은 '청림나무' 식목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다함께 심고, 키우고, 나눠 청림韓 세상! 만들기'를 슬로건으로 임원들이 직접 청림을 상징하는 동백나무(본사)와 배롱나무(오월드)를 식재하여 청림경영의 의지를 다지고, 항상 청림한 자제로

업무를 수행할 것을 전 직원에게 당부하였다. 공사 관계자는 “공사의 청림실천 의지를 대내외에 알리고 지속적 청림경영을 펼치기 위해 본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공사는 민첩 청림화본 키우기와 외부 고객을 위한 청림 꽃 저금통 나누기 행사를 이달부터 연중 실시할 계획이다.

김대선기자



**한화토탈에너지스, 지역 장애인 직업장애 치량 기부** 한화토탈에너지스가 장애인의 날을 맞아 서산지역 장애인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돕는 직업장애 치량 기부하며 지역상생과 소외계층 지원에 나섰다. 한화토탈에너지스는 17일 서산시청에서 '서산시 장애인 직업장애 치량 기증식'을 개최하고 서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에 5300만원 상당의 카니발차량을 기부했다.



**625첨전유공자회 대전시지부, 동신중학교 학생에게 『교육부 후원 625바로알리기 교육』** 대한민국625첨전유공자회 대전광역시지부(지부장 양철순)는 지난 17일 대전동신중학교(교장 나종열) 방송실에서 전학년 236명을 대상으로 분회 이상노 교육부장의 '병화수호를 위한 625전쟁의 올바른 이해'라는 주제로 625바로알리기 교육을 실시했다.

## 동구 '마.블. 청년단' 지역사회 마약 예방활동 본격화

### 마약중독 예방을 위한 온·오프라인 캠페인 병행 등



대전 동구구청장 박희조는 이달 11일 마약류 예방교육 과정을 마친 청년 마약중독 지킴이 마.블.(마약 블로킹) 청년단'이 지역사회 청년들의 마약류 예방을 위

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18일 밝혔다. '마.블. 청년단'은 대전대학교, 대전보건대학교, 우송대학교, 우송정보대학교, 충남대학교, 한남

대학교, 조선대학교, 부산대학교 등 7개 대학교의 대학생들로 구성된 청년 마약중독 지킴이다. 마.블. 청년단은 18일 대전보건대학교에서 마약류 중독 예방 캠페인을 시작으로, 지역사회 다양한 곳을 방문해 예방 활동을 하는 등 지역사회 청년들의 마약류 예방을 위한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청년층이 자주 사용하는 사회관계망(SNS) 등을 이용한 온라인 활동과 오프라인 활동을 병행해, 마약류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갖기 캠페인 진행 등 마약류 접근의 사전 차단 중요성과 중독 위험성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 아산폴리텍대, 허남선 이사장과 AI 실습실 오픈



한국폴리텍대학 아산캠퍼스(학장 김용목, 이하 아산폴리텍)는 17일, '금오평산실습실 오픈식'을 가졌다. 이번에 오픈한 실습실은 빠르게 변화하는 AI소프트웨어 분야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시설로 아산폴리텍 명예학장을 역임하고 있는 금오평산장학재단 허남선 이사장의 소중한 기부로 구축됐다.

오픈식 행사에는 아산폴리텍 허남선 명예학장과 장원희 금오공업고등학교 총동문회장 및 이원대 기획국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었다. 허남선 명예학장은 지난해 11월 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발전기금 1억원을 기부했고, 아산폴리텍은 급변하는 IT분야의 교육환경 인프라 구축을 위해 AI소프트웨어과 실습실 개선을 추진했다. 새롭게 오픈한 실습실은 '금오평산장학재단'의 이름을 따서 '금오평산실습실'로 명명했다. '금오평산실습실'은 인터넷 및 모바일 환경의 폰트, 백엔드를 구축하는 웹 개발자 양성을 위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또한, 데이터 및 IoT기술을 바탕으로 AI로봇과

인공지능 제품 및 서비스를 구현하는 인공지능 개발 전문가도 양성할 수 있도록 첨단 시설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김용목 학장은 “첨단 기술인재 양성을 위해서 이끈 것은 기부를 표현해 허남선 이사장에게 감사하며, 기부가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 첨단 산업을 이끌어갈 우수 인재 양성에 더욱 힘쓸 것”을 약속했다. 허남선 이사장은 “학생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 아산폴리텍의 발전과 우수인재 육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산=리영주기자

### 천명일 '이야기 천자문' 鱗潛羽翹

鱗비늘 린潛잠길 잠 찌깃우 翹날개 상



천명일

허물 많은 영혼은 물속에 잠기는 어류가 되고 생각이 가벼우면 공중을 나는 새가 된다.

부처님이 세계와 중생이 생기기 된 까닭을 밝히신 말씀을 풀어보면 뜻 생명들은 네 가지 방법으로 생겨난다고 한다. 태로 나고 알로 나고 습기로 나고 화하여 생기는 이 네 가지를 태胎·란卵·습濕·화化 사생 四生이라 한다. 이 사생으로 비롯하여 시방 세계에는 열두 갈래의 중생이 충만하게 되었다.

그 까닭은 중생들이 자기의 본모양妙覺인 근본자성의 맑고 고요한 각성을 돌이켜보지 못하고 앞



드러난 식심분별識心分別로 혼란된 진 도상顛倒相을 따르기 때문이라 한다. 공연히 앞에 드러난 허망

한 육감 六感 육정六情으로 생겨나는 생각에 매료되어 마침내 8만 4천 가지의 어지러운 분열상을 내게 되었다.

그러므로 상정情의 욕정이 많으면 태생의 종류에 들고, 어지러운 생각이 많으면 난생卵生과에 들어수천 종의 날고 잠기는 어류와 비상飛翔하는 조류가 된다.

또한 어지러운 욕정의 욕습慾習이 지나치면 끈끈한 정액에 기생하는 난세포처럼 습기에 감촉해서 생기는 습생濕生과에 떨어진다. 또 사랑 하다가 미워지면 서로 밀어내는 혐오감으로 말미암아 변화해서 생기는 수천 종의 나비, 파리 같은 화생化生과에 떨어진다.

### 시의 향기



현영길 작

#### 현영길 시인의 '서울찬가'

#### 마음 생각

생각 신기하다. 꼬여이면 마음 아프다. 그러면 모두 꼬이니 말이다.

마음 생각 지배하는가? 생각마음 지배하는가? 우리네 생각, 마음 움직이는가? 때때로 마음 원하지만 생각하면 화를 부르고 마음 풀리면 모든 것 풀리니 신기하구나!

▶ 시작 노트: 꼬인다면, 그댄 어떻게 푸는가? 술술 풀리는 실타래처럼 그대 마음, 생각 풀리는 삶 사는가? 우리네 마음속 깊이 좌정하시는 임을 그대 아는가? 임이 동행할 때 모든 것 풀리는 이유 그댄 아는가?

### 시의 향기



노중하 작

#### 노중하 시인의 '봄내골 사랑'

#### 럼피스킨병

T.V뉴스를 보면 걱정이 된다. 고향에서 소를 사육하는 친구 생각 축산 농가의 피해가 없기를 바람 소의 피부에 검은 반점이 생길 위험한 상태로 보인다.

충남에서 시작하여 인근 지역으로 전염 불경기에 소 키우는 축산 농가 걱정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처음으로 발생 지구촌 시대 전 세계로 확산하는 현상

질병 관리청에서 백신을 공급받아 국민의 건강에 도움이 되었으면 럼피스킨병 감염된 소 격정하는 농장주 살처분하는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

### 한홍선 자원봉사자의 '봉사 이야기'



한홍선

한국문화해외교류협회 서울경기지 회장·자원봉사위원

업에 도전했다. 처음에는 형님과 후배, 친구 등 5-6명이 모여 '우아한 형제들'을 결성하고 카페를 작업실 삼아 주말마다 모여 프로젝트를 진척시켰다. 6월 25일 '배달앱'을 출시했다. 그는 '거리를 어지럽히고 집집마다 때문에 덕지덕지 붙어 있던 음식점 전단지'를 모바일로 옮기면 어떻게 하는 생각에 회사 창립의 계기가 됐다고 한다.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발로 뛰고, 아파트 경비 아저씨에게 부탁하고, 심지어 휴지통을 뒤지는 일도 서슴치 않았다고 한다. 드디어, 남다른 발품을 파는 성실함과 실행력을 알아본 '본엔젤스'로부터 1억 원의 투자를 받게 된다.

창업 10년 만인 2019년 1천 만이 넘는 국내 대표 배달앱이 기업가치 5조 원의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했다. 근래 그는 자신의 재산 절반 이상을 사회에 환원했다.

세계적 기부클럽인 '더 기빙 플래이어'의 한국인 최초 기부자가 되었다. 기빙 플래이어는 '빌 게이츠'와 '워런 버핏' 회장이 만든 기부단체로 유명하다. 이 단체는 아무나 참여할 수 없다. 재산이 1조 원이 넘어야 하고, 그중 반 최소 5,500억 원 이상을 기부해야 한다.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 테슬라 CEO 엘런 머스크, 영화 스타워즈의 조지 루카스 감독, 오리클의 래리 엘리슨 회장,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 등이 가입되어 더욱 유명하다.

김봉진은 한국인으로서는 처음, 아시아에서 7번째, 세계에서 219번째 기부자가 됐다. 이로써 한국은 세계 25번째 국가가 되는 계기도 되었다. 이와는 별도로, 그는 그동안 '사랑의 열매'에 71억 원을 기부하는 등 최근까지 100억 원 넘게 기부해 오기도 했다.

전남 완도의 작은 섬 소안도의 '구도'에서 '빈농'의 막내아들로 태어난 김봉진은 겸손하게 이렇게 말한다. "좋은 운과 신의 은총이 있었기 때문이지? 제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어요."

## 사설

### 금융사고가 반복되는 이유

12일 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우리은행 직원 전 모 씨에게 징역 15년, 공범인 동생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선고한 추징액 724억 원도 전부 인정했다. 전 씨는 은행에서 일하던 2012년 3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총 707억 원을 빼돌려 주가지수 상승 거래 등에 쓴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하고, 동생과 공모해 횡령금 일부를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빼돌린 혐의도 있다.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일이 현실 세계에서 일어난 것이다.

지난 한 해에만 이런 은행권 금융사고가 57건으로 집계됐다. 은행별로 보면 3분의 2에 가까운 사고(36건)가 5대 은행에서 발생했고, 사고 유형별로는 횡령이 16건으로 가장 많았다. 세상은 무서운 속도로 진화하는데, 은행 감시 시스템과 근무자의 준법 자세는 오히려 퇴행하는 듯해 안타깝기만 하다. 금융사고는 재무건전성을 훼손하고, 주주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반복적으로 사고가 일어난다는 건 이를 예방하는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최고경영자 책임이 크다. 지난 한 해 동안 5대 은행의 준법감시인력만 85명 늘었다. 준법감시인력은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대표 장치인데, 은행 업무 과정에서 법규를 위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통제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결국 금융사고 예방은 이들 인력의 능력과 역할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운영되느냐에 따라 달랐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현행 준법감시인을 보면 법적 전문성보다는 영업적 등 현장 경험 인력이 대부분이라고 한다. 이렇게 중요한 제도를 소홀히 운영한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금융당국 책임도 크다. 금융당국 역할은 단순한 지적이나 훈수가 아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보다 예방이 더 중요하다. 이를 무력화하는 요소 중 하나가 관행으로 이어져 온 전 관에 있다. 금융당국에 근무했던 많은 인력들이 감독 대상인 은행의 사외이사나 감사로 옮겨 간다. 그런데 이들이 역량을 발휘하는 부분은 위기관리나 건전성 개선이 아니라 문제가 터졌을 때 금융당국의 제재를 최소화하는 데 있다. 결국 사고의 근본 원인은 은행 인력에서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최고책임자들 탓이 크다.

### 봄철 부주의 화재예방 안전수칙!

#### 기 고



김선태 아산소방서 예방총괄팀장

(21.3%), 용접·절단·연마(10%) 등으로 확인되었다.

봄철, 부주의 화재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자.

첫째, 야외 활동 시에는 항상 신중을 기한다. 화기를 사용할 때는 주위에 건조한 잔가지나 가까운 나무 등의 가연성 물질이 없는지 확인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불꽃이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해야 한다.

둘째, 담배와 같은 화염을 동반하는 활동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담배꽂이는 불씨를 완전히 제거 후 지정된 장소에 버린다.

셋째, 주거 공간에서 화기 사용 시 자리를 비우지 않고 화재 경보기와 소화기를 설치하여 화재가 발생했을 때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항상 대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봄철에는 건조한 바람이 분다. 불을 사용할 때는 바람이 불지 않는 장소를 선택하고, 불씨가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해야 하며, 쓰레기, 논, 밭, 임야 소각은 하지 않는다.

봄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사용자에게 행복을 줄 수도 있고, 불행에 안겨줄 수도 있다. 우리 모두 안전 수칙을 숙지하여 화재로부터 우리의 가정과 자연을 지킬 수 있도록 대비해야겠다.

## 금산군, 복수면 행복문화센터 준공식 개최

### 기초생활거점 조성지역민 공동체 활성화기대

금산군은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복수면 곡남리에 조성된 행복문화센터 준공식을 지난 17일 개최했다.

복수면 행복문화센터는 지상 1층 499.38㎡ 규모로 다목적 강당, 활동실, 체력단련실 등 주민들의 문화여가생활을 위한 공간으로 구성됐다.

특히, 지역주민의 소통과 화합의 공간이자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기초생활 거점으로서 복수면 지역주민들의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준공식에는 박법민 금산군수를 비롯해 김기운 금산군의회회장, 심길용 한국농어촌공사 세종대전금산지사장을 비롯해 지역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복수면농악패와 청소년관악단의 공연을 시작으로 사업 경과보고, 축하공연, 테이프 커팅식,

시설 관람 등이 진행됐다.

복수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은 지난 2020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에 선정된 후 교육문화복지 등 중심 기능을 강화하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총 4억4400만 원(국비 2억9600만 원, 지방비 1억4800만 원) 투입돼 복수면 행복문화센터 및 행복문화광장 조성, 지역역량강화 교육 등 사업이 추진됐다. 또한, 농촌협약을 통해 2단계 사업이 확정돼 1단계에서 구축된 서비스 공급체계가 확대될 예정이다.

박법민 금산군수는 "복수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으며 '사업추진을 위해 노력해 주신 지역주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어 "복수면 행복문화센터가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을 물론 주민들의 화합에 이바지하는 중요한 기반 시설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성복 기자

\* 외부 필진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서대전역-1970부대 2세대 업무협약 체결

## 재난·재해 공동 대응 역량강화

한국철도 서대전역(역장 김선형)이 지난 12일 오전 1970부대 2세대와 통합방위 작전대체 확립과 안전한 철도 운송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응급 복구와 재난·재해 공동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한 군 장비의 저탄소·친환경 철도 이용을 권장하며 기후변화에 대응한 환경 재난 예방에도 나설 계획이다.

송병배기자



### 대전투데이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대동빌딩 7층  
젊은생각·비즈니스

2006년 5월 17일 창간

발행·편집인 김현정	회장 김성구	논설위원 김우영·김성식·김종복
전화안내 042)538-3030	기사제보 042)538-1601	팩스번호 042)538-2211
구독매달안내 042)538-1602	광고신청안내 042)538-1603	구독료 월1만 5000원

등록번호 : 대전가 00017

인쇄처 : 동양일보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GS건설 '문화자이SKVIEW' 견본주택 19일 오픈

### 지하 3층~최고 34층 총 1,746가구 규모...전용 52~84㎡ 1,207가구 일반분양

대전 중구에서 20년 만에 선보이는 1,500가구 이상 대단지 '문화자이SKVIEW' 견본주택이 19일 금요일 오픈한다.

GS건설은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동 문화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지에 SK에코플랜트의 컨소시엄을 구성해 조성하는 '문화자이SKVIEW'의 견본주택을 19일 금요일 오픈하고 본격 분양입장에 돌입한다고 18일 밝혔다.

문화자이SKVIEW는 지하 3층~지상 최고 34층, 아파트 19개 동, 전용면적 39㎡~123㎡, 총 1,746가구 규모로 들어선다. 이 가운데 1,207가구를 일반분양하며, 전용면적별로 살펴보면 ▲52㎡ 83가구 ▲59㎡ 317가구 ▲75㎡ 305가구 ▲84㎡ 502가구로 구성된다.

청약일정은 오는 29일 월요일 특별공급접수를 시작으로 30일 화요일 1순위 청약접수, 근로자의 날 다음날인 5월 2일 목요일에 2순위 청약접수를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는 5월 9일, 정경계약은 같은 달 20일부터 22일

까지 3일간 진행할 예정이다.

1순위 자격요건은 대전시와 세종시, 충남 등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세대주·세대원 가운데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역별 예치금액 충족시 모든 주택형 청약 자격이 주어진다. 유주택자도 1순위 청약 신청이 가능하고 2년 이내 가점제 당첨 세대에 속한 수요자도 1순위 추첨제로 청약 가능하다.

문화자이SKVIEW는 우수한 교육환경과 함께 풍부한 교통·주거 인프라를 두루 갖췄다.

단지로부터 도보 약 5분 거리에 동문초등학교가 있고, 글꽃중학교와 동산고등학교도 걸어서 통학이 가능하다. 단지 바로 인근에 보문산이 있고 보문산 대공원, 사정공원, 대전오월드, 대전보훈공원 등 다양한 공원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다. 뿐만 아니라, 대전 최대 규모 공공도서관인 한밭도서관도 단지 바로 앞에 위치하여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췄다.

교통 환경도 양호하다. 문화자이SKVIEW는 단지 인

근 유등로와 국도4호선을 이용 시내는 물론 전국으로의 이동이 편리하고, KTX서대전역도 차량 약 5분 거리에 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착공해 오는 2026년 개통 목표인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노선 문화역(가칭)도 단지 인근을 거치게 돼 대중교통망은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풍부한 생활인프라도 특징이다. 차량으로 약 6분 거리에 코스트코와 홈플러스, 하나마트 등 근린생활시설이 있어 쇼핑이 편리하고 충청권 최대 규모 3차 상급 종합병원 충남대병원도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다.

외관, 조경, 커뮤니티 등 특화설계를 통한 뛰어난 상품성도 문화자이SKVIEW의 강점이다.

먼저 커튼월특과 측면 특화 등 외관 특화설계를 적용해 단지 품격을 높였고, 다양한 컨셉의 조경 특화설계가 적용된다. 특히, 수경시설을 갖춘 중앙광장과 함께 플라워가든, 워터런파크, 커뮤니티가든 등 입주주민이 단지 내에서도 힐링할 수 있는 다양한 컨셉의 조경 공간이 마련

될 예정이다.

특히, 대단지의 장점을 살린 대규모 커뮤니티 시설이 눈길을 끈다. GDR 골프연습장, 사우나, 피트니스클럽, GX 등 기본적인 커뮤니티 시설과 함께 YBM영어도서관, 다목적체육관, 카페테리아, 게스트하우스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GS건설 분양관계자는 "문화자이SKVIEW는 훌륭한 교육환경과 교통·주거 인프라를 두루 갖춘 훌륭한 입지에 GS건설과 SK에코플랜트가 협력해 선보이는 대규모 브랜드 단지"라며, "다양한 특화설계를 바탕으로 입주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상품으로 준비한 만큼 일대 랜드마크 단지가 될 수도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자이SKVIEW 견본주택은 대전시 중구 용두동 112-7에 마련되며 입주는 2027년 하반기 예정이다.

김태선기자